朝鮮日報
夕刊
一日(火)
本紙朝夕刊十面

에國이總動員하면 伊軍은斷然進擊

伊太利의對에攻擊은去益尤甚

國境線의風雲險惡

【羅馬三十日發電通】에디오피아의 總動員은 드디어 近近 行할 情勢에 잇는데 右에 對하야 擴開한바에 依하면 伊太利植民地에 對하야 脅威를 與하는것이라고하야 에디오피아國이 右總動員을 行할 境遇에 伊太利側은 植民地의 安全確保名目下에 斷然 對에디오피아進軍을決行할터로 伊太利官邊에서는 에디오피아의 總動員이 가까웟다는 報道에 如左히 말하엿다 에디오피아皇帝가 드디어 近近 總動員을 行하기로 決定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伊太利政府及 國民은 冷靜한態度를 持續하고 또 極히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아스마라三十日發電通】三十日 앗사브、왈왈、아스마라方面의 伊軍이 드디어 移動을開始하게되어 戰期急迫한 旨를 公表하엿는데 또 政府當局은 右에關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伊軍의 偵察飛行機는 頻頻히 我領內에 飛來해오고 또 國境附地方에서는 伊軍의 機關銃隊、砲兵隊가 連日 威嚇或은 挑戰의 目的으로 發砲하고잇다 앗사브方面의 伊軍도 드디어 活潑한 移動을 開始하게되엇다 二十八日 하일레셀라시에 陛下가 御親電을發하시어 에디오피아가 終始和平的態度를 가지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伊太利가 益益 對에軍事工作을 進行하고잇는것을 訴한것도 即 伊軍이 如斯한 行動을 取하고잇는것을 訴한것인데 連日의 伊軍의行動으로보아 伊軍의 對에攻擊은 益益切迫되엇다고보고잇다

勸告案採擇압두고 英政府重大閣議

이든無任所相의歸還을기다려

英最後的廟議決定

【倫敦三十日發聯合】英國政府는 聯盟代表 이든無任所相의 歸還을 기다려 다우닝街十番地의首相官邸에서 全員閣議를 開催하고 聯盟理事會의 勸告案採擇을 압두고 最後의 廟議를 決定하기로되엇다 이미 各閣僚는 暑中休暇를 終하고 거의 全部가 倫敦에 歸還하야 待機中인데볼드윈首相은 特히 三十日午後五時半 버킹검宮殿에 伺候하고伊에兩國間의 紛爭을繞圍한刻下의 國際情勢를 直接 皇帝조지五世陛下께 奏上하고 政府의 方針을 言上하야 미리 內諾을 어덧다고 解釋되는다 英國政府에서는 이미八月二十二日의 閣議以來 根本方針을 確立하야 伊太利政府가 畢竟 軍事行動을 取할 境遇에는 聯盟理事會一致의 支持를 條件으로 斷乎 制裁案을 發動키로 決定하고잇는데 그後 紛爭의平和的處理는 조곰도 進展되지안코 또 佛國政府로부터 制裁案支持를 確約하게된 結果 英國政府는 聯盟機構外의 直接交涉을 排斥하고 斷乎 旣定方針대로 邁進할 決意라고解釋된다

軍用船三隻으로

伊軍又復東阿遠征

【메시나二十八日發電通】二十八日 又復 二隻의運送船이 伊太利步兵을 滿載하고 東阿遠征의 途에 올랏다 即 午後十一時五十分頃 運送船 사우로號는 그란삿소」師團의 將校五十名 下士官四百十一名 兵一千百八十二名을 실고 出帆하엿는데 이어서 午後十二時 三十分에는 運送船 베르그에데시號가 將校九十名 下士官六十六名 兵千三百十八名을 滿載하고 東阿로 向하야 出帆하얏다 또 伊太利 運送船론발자號는 同日 將校八十二名 下士官 普通兵二千四百 二十名을 실고 나폴리를 出帆하얏다 途中 씨실리島의 멧시나港에 들러서 同港에서 司令官及 수라師團의兵千五百名을 실고 다시 地中海를 經하야 東阿로 向할터이다 또 運送船 치치아데야號에 將校百十一名 下士官及 普通兵千九百八十名 其他軍需品을 積載하고 東阿植民地로 向하야 出帆하엿다 또 伊太利皇太子 움벨르트殿下 파시스트 大協議員 바이스트록 將軍은 兩運送船의 出帆을 餞送하고 遠征軍의 首途를 祝福하엿다 또 二十八日 午後 파론號 사센號 벨베세號는 二千五百名의 將兵을 실고 나

[illegible]부터 東阿로 出帆하엿는데 同日 遠征의 途에 오른將兵은 合計八千五百名에 達하엿다 伊太利氏의 東阿增派도 이것으로 一段落이 아닌가십다

伊士民軍五十名

에디오피아에投降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聯合】에리트리아國境에 配備된 伊太利植民地士民軍 五十名은 三十日 銃五十挺、照準大砲、機關銃八挺을 가지고 國境線을 突破하야 치그레地方에 侵入하엿다고 傳한다 投降兵은 即時 武裝을 解除하엿는데 早晩 에디오피아軍에 編入될것으로 보인다 에디오피아軍은 開戰이되면 士民軍의多數는 伊太利를 背反할것이라고 意氣 百倍하고잇다

英佛伊三國間에 形勢轉換密議

【倫敦二十九日發電通】國際聯盟理事會가 伊에紛爭에 對하야 聯盟規約 第十五條第四項에 依한 勸告를 包含한 報告書作成手續을 進行하야 對伊關係가 急迫되는것가티 보이는 이때에 二十八日의 伊太利 閣議가 意外에 强硬한 콤뮤니케를 發表한것은 쥬네브의 推移와 全然別個로 依然大國間의 舞臺裏에서 秘密商議가 進行되고잇는것을 裏書하는것이라고 解釋되는편이 만흔데 二十九日의에스트레스紙는 近近私的商議로부터 本格化될것이라는것을 報道하고 뭇솔리니伊首相이 라발佛首相을 介入者로하야 英國政府에 接近하야 英國及 聯盟이 同意할수잇는 形式의 三國商議再開에 依하야 쥬네브의 形勢轉換을 圖할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伊國航空母艦 阿弗利加로向發

▲軍用船으로兵五百名遠征

【나폴리三十日發電通】軍用船에레코號는 兵五百名及 多數의軍需品을 積載하고 三十日 나폴리로부터 東阿植民地로 向하야 出帆하고 同時에 航空母艦미라그리아號도 나폴리港을 出帆하야 戰雲이 濃厚한 東阿로 向하얏다

에國各地駐在의 伊太利領事撤還

開戰은伊人退去完了後

【아디스아베바一日發電通】에디오피아各地에 駐在한 伊太利領事들의 撤歸는 目下 早急히 行하고잇는데 레브말로로부터 아디스아베바로 向하야 撤歸中인 밍게領事는 週末頃 撤歸隊의 先鋒으로 아디스아베바에 到達하야 지프티經由 歸國할 豫定이다 마카레駐在領事는 交通不便으로 數日遲延될 모양인데右撤歸進行中은 伊太利軍은 大規模的侵略行動을 取하지 안코 假令 衝突이 起하더라도 局地的의 것이될것으로 보인다

【倫敦一日發電通】아디스아베바로부터 倫敦各方面에 達한 情報를 綜合하건대 伊에開戰은 지금全혀 時間問題라고 信憑하는편이 만흔데 데일리·헤랄드紙特派員의 電報는 目下 에디오피아로부터 急히 撤歸하고잇는 在留伊太利人의 國外退去가 完了할 時機가 戰鬪開始의 時刻을 決定하는것이라고 報道하고잇다

이든氏歸還途中 巴里서佛首相과會談

【쥬네브三十日發電通】이든氏는 卅日午後一時二十分 當地發 巴里로 向하엿다 巴里서 一泊한後 一日 倫敦에 歸還할 豫定인데 巴里에서는 아마 다시라발首相과 會談할것으로 보여 注目되고잇다

駐英伊太利大使 英外相을訪問

直接交涉進行?

【倫敦三十日發電通】駐英伊太利大使그리디氏는 三十日午後 英外相호어氏를 外務省에 訪問하고 三十分동안 懇談을 遂하엿다 右는 英伊直接交涉의 進行을 말하는것이라고 注目되고잇다

英戰鬪艦 엘리자베스號出動

【倫敦三十日發電通】英國海軍省은 戰鬪艦퀸·엘리자베스號(三一、一〇〇噸)을 當地碇泊中인 데본샤州의 데본·포르트로부터 出動케하야 去二十八日 지브랄타르軍港에 赴케하엿다는 旨를 三十日 發表하엿다

伊에風雲急迫에 埃及陸空軍待機

大戰當時의情景再現

【카이로三十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가 總動員令에 署名한結果 伊에兩國軍의 戰端開始는드디어 目睫에 切迫하얏는데一方英國海軍의 精銳는 알렉산드리아 포르사이드兩港에 待機하야 地中海上事態發展과함께 命令一下 出動準備를 整頓하고잇다 特히 알렉산드리아港에는 航空母艦글로리어스號를 爲始하야 巡洋艦等二十隻 또 스에즈、포르사이드方面에는 主力艦파람號以下數隻이 遊弋하야 世界大戰當時의 情景을 再現하고잇다 伊太利領 리비아國境의 伊太利軍의 攻擊에 對해서는 英國軍作戰本部에서는 地形關係上 到底히 攻擊치못할것이라고 아는체하고잇스나 伊太利政府가 드디어 大軍을 集中하고잇는關係가 埃及駐屯英國空軍의 充實에 熱中하고잇다 알렉산드리아港은 巡洋艦 英國軍用機의 往來 頻繁을 極하고 兵員軍需品과 軍用機의到着으로 市內는 全혀 戰時氣分이다

印度英駐屯軍과 回敎徒反軍大激戰

死傷者數百에到達?

【시므라三十日發聯合】페샤왈駐屯北西特別區軍은 三十日 아프가니스탄 國境附近에서 回敎徒反軍鎭壓에 出動하야 反軍과大激戰을 行한後 이것을 激退하엿는데 右戰鬪에서 英國人將校二名戰死 三名負傷、其他死傷七十名 乃至八十名에及하얏다 反軍의 死傷은 相當히 多數에 達한 모양이다

메멜地方人民投票 三十日도續行

發砲騷擾에二十餘名負傷

【메멜卅日發電通】메멜地方議會의 人民投票는 二十九日朝부터 夕刻까지 [illegible]되어 [illegible]히 리트와니아系市民과 나치스黨員의 鬪爭이잇서서 一部에서는 發砲騷動을 演出하야 二十餘名의 負傷者를 낸곳도잇서서 投票中斷되엿스나 多幸히 騷擾은 크게 擴大되지안하엿다 또投票는 未了로 三十日도 午前八時부터午後六時까지 續行될터이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電通)】一日의 閣議決定事項은 如左하다

一、朝鮮神宮職員令中改正件

一、人事

農林省米穀局長 荷見安

陞叙高等官一等

制裁는專혀 通商뽀이캇트

佛國도近近國務會議

【巴里三十日發聯合】佛國政府는 一日 乃至 二日 緊急國務會議를 開催하고 制裁案發動에 關한 根本方針을 決定하기로 되엿다 라발首相은 쥬네브로부터 歸來하는 同時에 地中海上의 共同作戰에 關한 英國政府의 照會를 檢討하고 그回答을 通達하야 具體的研究를 委囑하엿는데 國務會議는 右照會에 對한 回答도 아울러 決定할터이라고한다 佛國政府는 和協工作決裂의 結果 制裁案發動은 不得已하다고 觀念하고잇스나 끗까지 戰禍의擴大를 阻止하는 見地에서 制裁案은 專혀 通商뽀이코트를 主로 伊太利로부터 輸入될 棉花、銅、石炭、石油等의 輸入을 禁止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土肥原少將報告로 關東軍重要幕僚會議

【新京三十日發聯合】奉天特務機關長 土肥原少將은 三十日午前七時 新京에到着하야 少憩後關東軍司令部에 西尾參謀長及 板垣參謀副長을 訪問하고 察哈爾省主席 秦德純氏、蕭振瀛氏와의 會見結果를 詳細히 報告하엿다 右會見後 關東軍은 繼續하야緊急幕僚會議를 開催하고 土肥原少將의 報告에 基하야 內蒙古正工作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는데 確聞하건대 內蒙古自治政務委員會副委員長德王과 綏遠省政府主席傅作義氏와의 對立을 契機로 內蒙古自體의 自覺的旋回運動이 드디어 具體化할 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新府尹四氏任命

光州、全州、大田의 府昇格에 伴하는 新府尹은 一日 如左히 任命發令되엇다

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授兼本府事務官

任總督府府尹(四等) 增田 道義

命木浦府在勤

府理事官(釜山) 杉山 茂一

任總督府府尹(六等)

命光州府在勤

總督府事務官(大邱) 高籔 健二

任總督府府尹(六等)

命全州府在勤

總督府府尹(木浦) 野口 三郎

命大田府在勤

辭令

鍾城郵便局長

遞信書記 朝倉 正博

命南陽郵便局長

羅南郵便局長

同 閔 孝一

命鍾城郵便局長

京城中央電話局在勤

同 吐師 榮藏

命京城中央電話局庶務課長

【東京一日發電話(電通)】

京城帝大敎授 金子 光介

同 竹井 廉

陞叙高等官二等(各通)

八面鋒

◇土木談合事件裁判에 大學總長이 두분식이나 出廷辯護。

◇다가튼 法律家라할지라도 大學은 學問의府이니 總長도學者일것。

◇學者면 學問이나 研究함이天職일것을、詐欺事件辯護까지는 너무밧부지아니할가。

◇旱災로 凶年은 全羅道에、배미마다 執行狀이 立稻를 얼거매고잇다고。

◇食糧差押禁止法은 엇지되얏는가、作人이 餓死하면 明年부터는 地主님네가 耕作할心算인가。

◇金波萬頃 여믄곡식 맛보기도前에 執行밧네、落穗나 남을것가 참새떼나 조흘것가。

始政二十五週年記念式

朝鮮總督府 始政二十五週年記念式은 今一日 午前九時半부터 總督府 東側廣場에서 擧行하얏다。連하야 午前十一時부터總督府構內 勤政殿에서 始政以來 物故功勞者並 殉職者招魂祭를 擧行하고 午後一時부터 慶會樓에서 祝賀宴을 設하얏다

(寫眞은 記念式場)

中國側遷延主義에 斷乎嚴重抗議

漢口에는軍艦集結!

【漢口三十日發聯合】去九月十八日 때마츰 九、一八第四週年記念日에 武漢警備旅內의 排日포스타問題에 關하야 三浦總領事는 中國當局에 對하야 好意的 折衝을 繼續하고 잇더바 中國側은 아직 遷延主義를 取하고誠意를 示하지아니하므로 日本當局에서도 斷乎 嚴重抗議를 發하기로되어 三十日 三浦總領事는 湖北省政府主席 張群氏와 會見하고 中國側 誠意잇는 回答을 要求하엿다 또 本問題에 對한 海軍側의 態度는 자못 强硬하야 九江方面警備中인 杉坂司令官은 二十九日夜 急據 漢口에 入港하야 各艦에 對하야 漢口에 集結을 命하고 三十日까지에 그數七隻에 達하엿는데 三浦總領事의 抗議와 아울러 斷乎한 決意를 示하고잇다

中國借款問題 前途에一大暗影

米國의借款整理說로

【上海三十日發電通】英政府最高經濟顧問레이드로스氏의 中國에서의 活躍에 對해서는、米國側은 當初부터 全然 交涉을 밧지안코 借款問題에 關해서도 嚴重警戒的 態度를 取하고잇는데 當地에서는 米國側의 眞意라고 如左히 傳하야 借款成立의 前途에 大暗影을 投하고잇다 即 米國의 意向은 萬若 中國이巨額의 借款獲得에 成功하면 財政的으로 餘裕가 생기므로 米國은 米借款對中借款의 即時整理를 要求한다는데잇서서 右에 對해서는 中國側도 不少히 頭痛하고 잇는모양으로 過日의 宋子文 레이드로스氏會見에서도萬若 米國이 不拂債務의 支拂을 要求하면 日本도 亦是同樣의態度를 取할것은 豫想키 어렵지안타 이리해서는 中國經濟界는 一大混亂에陷하야 中國을 救할 借款은도로혀 中國을 죽일 憂慮가 잇다고 此等 對策에 對해서도 協議하엿다고한다.

內蒙獨立機運의 政治的影響顯著

【北平三十日發電通】北中事件後의 北中新情勢는 漸次內蒙에發展하여 內蒙民族의 民族的獨立機運釀成에與하는 政治的影響은漸次 顯著해왓다 即 日本의北中工作이 察哈爾 綏遠 山西에全面的으로 進展하야 內蒙를圍繞한 此等諸省의 排日要素의解消와함께 北中五省을 一括하야日滿中 三國共和를 標榜하는理想的 政治地帶現出의 情勢를 看取한 內蒙民族은 이機會를內蒙의 民族的發展의 時期라고 看做하야 民國成立以來 多年來하고잇는 漢民族의 政治的經濟的 壓迫을 벗어나기爲하야 積極的으로 日本의支援을 求하고잇다 이情勢下에 잇서서 偶然히 西公旗石王의 內蒙自治 委員會委員免職에端을發한 內蒙의 實權者 德王과 綏遠省首席傅作義氏와의 對立紛爭은 單純한 局地的利害問題뿐만아니라 本質은 內蒙民族의 漢民族에 對한 民族的抗爭의烽火로 極히重要視되고잇다

閣議前藏相首相協議

【東京電話(電通)】高橋藏相은 一日午前九時二十分 首相官邸에岡田首相을 訪問하고 去二十三日以來 微恙全快에 對하야 人事하고 岡田首相으로부터 國體明徵問題의 經過와 陸海軍의 要求三項目을 閣議에서 承認하고 美濃部問題에對해서는 去二十七日 小原法相의 報告를 發表하얏는데 一般의 國體明徵實績에 對해서는 一日의 閣議에서 決定發表하기로 되어잇다는 旨를 述하고 白根書記官長이 作成한 原案을說明하야 諒解를求하고 高橋藏相은 二十八日 廣田外相의 訪問을 受하야 政府의 對中方針과 北中經濟發展問題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고 同九時五十分에는 廣田外相도 參加하야 今後의 對中方針과 北中問題에 關하야 各省의 緊密한 連絡下에 協力一致 對中國策遂行에 關하야 協議한後 閣議에 臨하얏다

汕頭事件에關해 斷乎한決意表明

海軍武官室에서

【上海三十日發聯合】汕頭中國官憲의 不法事件에 關하야 中國側은 盛히 데마를 뿌려 그非를 擁蔽하려고하고잇는데 上海海軍武官室에서는 三十日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야 眞相을 明白히하는同時에 斷乎한 軍의 決意를 表明하얏다

汕頭事件에 關하야 廣東側은 日本艦艇이 汕頭에 入港하야 不法壓迫을 加하고 或은 陸戰隊를 上陸시키어 無理한 難題를 强要하엿다는等 盛히 虛構의 宣傳을 하고잇는것은 나의 非行을 擁蔽하려는것이다 執拗한 排日行爲의 持續은 日中兩國을 爲하야서도 廣東全般을 爲해서도 何等 利益되는바 업슴은勿論 自掘墓穴하는것이다 第三艦隊는 中國에잇서서의 日本及 日本人의權益을 擁護하는同時에 事端을未然에防止하고 兩國國交의 調整에 努力해온것으로서 汕頭에陸戰隊를 上陸시켜서 中國側에不法壓迫을 加하엿다고하는것은 常識으로는 생각할수업다 但 廣東側이 依然 그非를不改하고 日本人에 對하야 不法壓迫을 加하고 그當然한 權益을 侵犯하는데 잇서서는 結果는 重大하야 艦隊로서도 이에 對하야 適當한 措置를 取할터로 미리 充分한 用意가 잇다고 생각된다

臺灣自治制實施

【臺北一日發聯合】臺灣地方行政에 一新紀元을 劃할 自治制는 今年四月一日 法律을 公布하고 諸般의 準備를 完了하엿스므로 드디어 十月一日부터 實施되엇다 이全島各地에서 記念會가 開催되엇는데 밤에는 中川總督이 라디오放送을 行하야 全島民을 激勵할터이다

압흔곳에 발느면 곳낫는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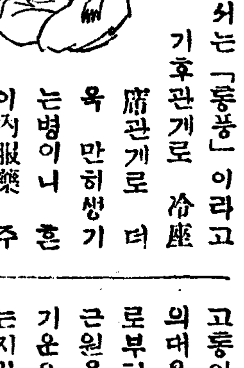
구진비 부슬〳〵오는가을장마가 오는요새에는 늘 고통을주는 신경통(神經痛)과 류-마지스가 재발하야 밤낫을두고압흠에 견되지못하게만들며 가정부인에서는 두통(頭痛)현기증으로 고통을밧으시고 사무에골몰하시는분은 하로밧이곳나면 몸이 피곤함을늣겨서 밤잠을잘못주무시게될것입니다。

이런때에는 압흔곳·부은곳·쑤시는곳·뎐곳·피곤한곳에 조곰발느고문질느시면 곳낫는 「사로메지-루」료법이 제일입니다。

직접환부에 작용하는 약임으로 효과도속하고 사용법도간편하며 발는후에 쓴적거리거나 몸에도 흉치안코 행기러운냄새와함께 곳낫습니다。

神經痛……류-마지스

조선에잇서서는 「풍증」이라고 하는 병이니 기후관계로 冷座 席관게로 더옥 만히생기는병이니 흔이內服藥 주사로치료를하시나 이런때에 「사로메지-루」를 조곰발느시고 살살 문질느시면 고통이곳개이게되며 습포(濕布)의대용이되고 약기운은직접환부로부터근육심부에침투되여서 병근원을다스려줍니다。또한강한약기운은전신에작용하나니 조곰발는지반시간안에 오즘에약의반응을볼수잇게됩니다。더구나밤잠을 잘 주무시게만들고 자는동안에 피곤함을 전부回復식혀줍니다。



압푼곳을곳개이게함

두통 변두증에 만흔환자를가진 우리나라에서는 흔이머리를 동여매시든가 또는內服藥 頭痛膏갓흔것을사용하시나 이것은모도衛生에해로우니 즉 內服藥처럼먹을수록量이 느려가며 胃腸에 반듯이고장을일으키게되야 속병이생기게되나 이런때에는 잇지마시고 『사로메지-루』를발느시면 그럿케심하든고통도곳개이며 약기운은전신에퍼저가서피의순환을좃케하고 병근원에작용하야곳처며기분도상쾌케됩니다

疲困함을回復식혀줌

오래안저서사무를보시든가 바누질 빨내 다드미질을하시다 일어스실때 근육이절니고 쑤시고 생기고 압푼때에『사로메지-루』를발느시고 살살주물느시면 압마의대용이되며 고통과피곤함이 곳 개입니다。또한뒤가날때나 평지낙상 든곳에발느시면 부은곳과 피가 맷친것을풀어주며 압품과쑤시는 것을 곳개이게하며 농막염갓흔 병발증을 예방하여줍니다 그럼으로 먼길을 걸으신때나 운동경기전후에 사용하시면 몸을 원기잇게 回復식혀 줌으로 스포-쓰藥으로도 칭찬을밧고잇습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으로 어느가정에도 꼭 한개식 준비하여두시사 이상에말슴드린 증세에 특효가·잇슬연만아니라 갑작이발생하야 고통을 견듸지못하실때…신경통…류-마지스…頭痛…齒痛…咽喉痛…胸痛…腰痛…皮膚搔痒症에 응급치료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빈대벼룩에 물닌때에 발느면 곳낫고 조곰 발너두시면 물것이근처에 오지안습니다。

더구나 보통鎭痛藥과는 전연달너서 殺菌 鎭痛 制痒의 작용이강함으로 물변사에 게문가의 치료를밧을때까지 응급치료로가되나니 대근처藥房에서 사주시기바람나이다。

十五錢 卅錢 一圓 二圓卅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니다

陸軍承認藥

發賣元 (株式)田邊元三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S-K-24

眼界는 爽豁無涯 相地構庵의 適所

新羅海浩禪師의 開創한 法域

望月寺前哨探訪 (二)

절(寺)은 조선의불교문화(佛敎文化)가 가장흥성하던정각(頂角)에올것은 신라(新羅)선덕녀주(善德女主)원년즉 지금으로부터 일천이백구십여년전에 처음지엿고 그후고려문종(高麗文宗)이십년과 리조숙종(肅宗)십칠년과 정종(正宗)사년에 세번중창한고찰(古刹)이라한다

절에올라 관음상(觀音像)을 참배하고라한(羅漢)을세이고 부도(浮屠)를 어루만지다양을 음소고 물맛조흔감로수(甘露水)로 양치하고 옷옷버서땀드리며 안파으로솟은진을 훨신벌고 안계상활(眼界爽豁)한 절안을내다보니 끝수와 노정까지시원하다 전면우편으로는 상하로적봉(上下露積峰)을빗기여운애망망한속에떠다 잠겻다하는군봉(群峰)과 평야는 자라갈가티보이며원편으로는 강원도의철원 김화(金化)까지 안개(眼界)속에 드러와 일혹이적벽강(赤壁江)배시노리에서 동망무창(東望武昌)하고 서망하구(西望夏口)를 불러대든 소자첨(蘇子瞻)의 그심정을 그욕이짐작케한다 경주(慶州)의 번화함을피하야 이곳에 상지구암(相地構庵)하얏다는 이절의개조(開祖) 해호선사(海浩禪師)의 멀리월성(月城)의 왕도를바라는등을따서망월사란 이름을 어듸이실로헛되짐이아니냐하다 속계의호리도 오히려 시계(眼界)가가이업거든 법사혜안(法師慧眼)이어지 신라왕도를못보고 본체하얏스랴?? 저녁해고흔속에 운애가 한겹두겹거치니 전면직선으로는 산넘어 한강의흐름에 가을바람가든실은 흰돗(白帆)이가옷동가옷둥흘러감이아 산남화(南畵)를 그대로보는듯 보는자로하야금잠시도망아(忘我)의 지경을배회케한다 (사진은 로적봉)

全京城商工業者丹楓노리參加規定

一、日時 十月六日(第一日曜)
一、出發 集合、淸凉里驛前 午前八時까지 同五十五分發車 到着同九時二十分 望月寺假驛着
一、歸路 望月寺假驛發午後五時二十分、淸凉里到着 同五時四十分
一、散會 同五時五十分淸凉里驛에서
一、場所 望月寺一帶 探勝
一、定員 三百名
一、會費 一圓二十錢 (汽車賃、午飯、茶酒類正宗一合瓶、記念品、賞品等包含)
一、申請場所及方法 (本社販賣部 又는廣告部로電話하시면社員이進拜接受함) ▲和信案內係 ▲天一藥房支店(黃金町) ▲和信連鎖店(西大門) ▲以文堂(安國洞) ▲博愛堂(鐘路三丁目) ▲東亞婦人商會(鐘路二丁目) ▲(東仁商店)(東大門) ▲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南大門市場內)
申請期限 十月二日까지

嫉妬의兇刃은一閃 恩顧?姦夫를刺殺

生活極窮으로己妻不德을公然默認타

今曉阿峴里의痴情殺人劇

날품파리 직업도 여의치못하야 가난에 쪼들리는끄테 할수할수업시 자기의 애처를 공연하게 간부에게제공한후그의 신세를입어가며 세남녀가 부자연한 동거를 해오다가 비록 먹지못해 한노릇이지마는 이저버릴수업는 사나히의 본능으로 가슴속치밀고오르는 열화가튼 질투를참다못하야 떨리는손에든 예리한비수로 간부를 질러죽여 마춤내 치정의 설움한 살인사건이가 울발도 깁허진 회색(灰色)거리에서 발생되엿다 일일 오전한시이십분경 부외룡강면(龍江面)아현리(阿峴里)사십칠번지 날품파리하는 김순경(金順敬)(四八)은 자긔와 함께 한방에서 동거하든「우동」행상 천창룡(千昌龍)(四二)의 몸을 날카로운 길이여섯치의 주머니 칼로 질른후 다시 가슴두어곳을 란자하자 붉시에 이회액을 당한 천창룡은 도망하여 문밧으로 뛰여나가며「사람살리라」고 고함을첫스나 원체 치명상의 중상을당한터이므로 문밧글 나가서대여섯간통되는곳에 이르자 혼도되며 길가에서 절명되고말엇다 범인은 이런 끔직한 살인범행을 저질른후 다시 자긔의 안해되는 도복동(都福童)(三七)을 찔르려덤벼들므로 그는몸을피하여 다려나자 범인은 그를길가로 추격해 나갓스나 도복동이가 그이웃술집으로 뛰여들어가 피신햇슬뿐아니라 동리사람들의 제지로 맛츰내 뜻을못이루고 흉행인의급보로 달려온 소관룡산서(龍山署) 공덕리 주재소원에게 자기한해와 함께 체포되고 말엇는데 현장엔 붉은피가 전긔 범행장소 대문깐과 길바닥에 물을드리고잇서 보는사람으로하여끔 몸서리를 치게햇다

三男女共同으로 半年間合宿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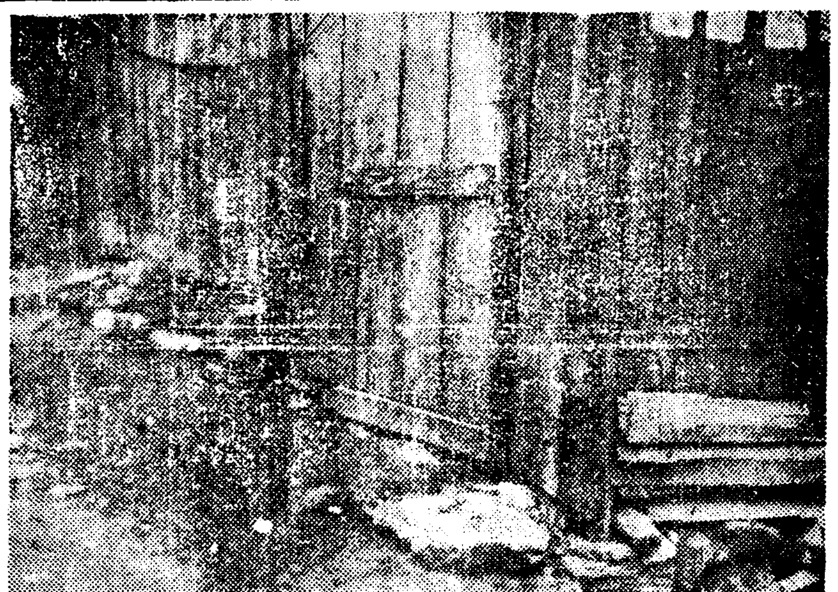
慘劇當夜도 한房에서同宿

慘殺하기까지動機

범행참사를 일으킨 원인에대하야 경찰의 조사한바에 의하면범인 김순경은 자긔 안해되는 도복동과 사이에 금년 열두살된 아들을 가지고 간구하나마 자미잇는 생활을해나려오든중 금년 이월부터 우연히 피해자되는 천창룡과 알게되자그 사이가 형제와가티 친밀해짐에 따라 지난사월경 전긔 참사발생장소에다가 월세이원식을주고 천창룡이가 세방을어더서 자긔와 김순경의부부 세사람이 한방에서 한국생활을하며 네것내것이업시 형제와가튼 살림사리를 해나려와다한다 그러나 김순경은 지게군으로 버리가 늘 천창룡만 못한테다가 범인의처 복동은 천창룡과 나이가 서로 엇비슷한관계로 부지중 이렇은투 남녀는 탈선을하기시작하야 지난사월중순경부터 암암리에관계를 매저나려온것인데 어떤때는 두남녀의 이비밀한관계가 봉남편되는 김순경의눈에 발견된때도잇섯스나 김은 그부당함을타일으고 압흐로는 결코그런부정한일이업도록 주의를시켯슴에도불구하고 간부돈남녀는 의연히 방약무인하게지내옴으로 집루와분로에번드기는무서운복수의 칼의섬광(閃光)은그후늘 간부부 두남녀를 노리고잇든차 범행을저즐르기전인 지난삼십일밤에도 한자리에 나란히드러누어자다가 돌연 김순경은 미리준비해두엇든칼로 흉문과질투의 불길이일시에 치바드며 그가치무서운범행을 저즐은것이다 그리고 사건이발생되자 지방법원검사국으로 부터는 수견(須見)검사가 현장에달려가 검시를 마춘후 시체는 금일일오후한시경성제대(城大)부속병원에서 해부에부치기로되엿다한다

仁川牛角里에棄兒

【仁川】지난 이십구일오후십시경 시내금곡리(金谷里)조선린촌(隣寸)회사압골목안에 산후약오개월밧게아니된 유아를바리엿다어린아해는 지흔가을밤 찬바람에기진하야 힘업시울고 잇는것을 부근주민이 발견하고 소관우각리파출소에 알니엿스나 엇지할도리가업시 걱정하든차에 외리(外里)권룡준(權龍俊)씨가 양육하기로 되엿다는데 어린아해는 남아로 품에는 을해삼월십팔일생(乙亥三月十八日生)이라고씌운 종이조각이 잇슬뿐이라한다



★……(사진은 참극내인집)

全朝鮮團體柔道

第七回로中央基靑主催·本社後援

來十二日、鍾路靑年會館에서

상무적정신의 발양을 위하야는 유거진독보의 경지를걸고잇는 유도(柔道)의발전은 괄목할 현상이어니와 이유도의 전조선단체적패권을결할 조선중앙 기독교청년회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칠회 전조선단체유도대회(全朝鮮團體柔道大會)는 오는 십이일오후한시부터 종로중앙긔독교 청년회 운동실에서 장절한육박전의막이 열리게되엿다 시내와기타각지에산재한 유도단체들은 이대회를통하야 그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단련되엿든실력을자랑하며 용약등장할것으로 벌서부터당일의성황을 예긔하고잇는바 동대회의 신청긔는 십이일까지로서매단체선수오명과 후보이명을 명기하야、주최측에신청하기를 바란다

◇綱領

一、本大會는 柔道의 技能을向上케하며 柔道의 根本精神을 發揮함으로 目的함
一、本大會는 朝鮮柔道界의團體優勝을決定함
一、本大會는 最後優勝團에게本會에서 製定한優勝旗를授與함
一、右優勝旗는 次會大會까지保管하엿다가 返還함

◇規定

一、審判은 最終으로함 (審判에對한것은 審判會에서決定함)
二、本大會의 試合時間은 五分間으로하되 大將은 七分間으로함
三、勝負는『單板』(一本)으로만 決定하고『折半』(技有)은一人에게限하야 有効함 萬若雙方大將이『비임』이될때에는雙方에서代表者一名式選拔하야 此兩者로勝負를 決할때까지 試合케하되試合의 時間은 七分間으로함 但延長戰은 三回에 限하며三回에勝負를 決치못할時에는審判及審査員의 投票로 此를決定함
四、本大會의 審判用語는左와如함『메여치기』『누르기』『조르기』『꺽기』『한판』『절반』『비임』『좋잇스면비임』『고만』
五、試合順序는 抽籤順에依함
六、抽籤의結果 相對가 無한團體는勝者로함
七、團體應援은勿論이어니와 個人으로도 聲援은 一切不許함
八、本大會에서 指定한 時間內에 出場치아니한團體는 棄權으로 認定함 但審判員及相對方에 承諾을得한時는 此限에不在함
九、本大會의綱領規定及審判의命令에違反하는時는 退場을命하는事도有함
十、本規定에記載치아니한事項은 慣例와審判會의決議에依함

籠球界豪華幕

第二回全朝鮮女子中等籠球大會

◇日時 十一月二十三日 午後七時부터
◇場所 市外梨花女子專門體育館
◇申請 十一月十八日까지 每校一팀

主催 梨花女子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混線넌센쓰續出

機械交換初日의南村一帶

五千個電話의一齊改名탓으로

今日부터開通된 西大門靈泉間電車

서대문에서 령천(靈泉)까지의 전차 복선공사는 ... 금일부터 운전하게 되엿다 (사진은 전차개통된 현저정 부근)

남촌일대에 잇서서는 구월삼십일 오후열한시오십구분 ─ 전류(電流)를타고 흘러오는 본국(本局)교환양의「남방」소리는 약간의감상성을 띄여서 멀리드니 이것으로써 소리를 시민(市民)에게봉사하는 최후의「서ー비쓰」는끗나고 혼선(混線)도함이시되리고 교환대로 부러는 그들의손도되일오전령시정각부터 노ー람복소리와 힌손대신에 자동식교환기라는기계가 그자리를 대위하게되엿다 욱정(旭町)중앙 전화국(中央電話局)이층에서 일사(一絲)도 어지러워 지지안는「셀렉터」의파인터가쏘든 금속성의리듬은 그대로 기게의 승리를 구가하기만 익숙지못한것은 사람의손가락과 눈이다 그리하야 자동교환 개설의첫날 ─「다이얼」의 수짜를 돌리는 손가락은 하지안흔일을 하는터이라 가득이나 서투른데다가 오천여개의 전화번호가 바꾸스니찻고부르는 일이모다 전처를손섭지못하다 그리하야 이날은본국내의전화는 흥은 장불주문하는 전화가 남의집안방에도 걸리고 회사에가서방남을 불르는 전화가 음식점에도 걸리고해서 도처에서『할로넌센쓰』를 속출한다 그러나 웃는 것은 역시사람의 편이고 기게는 아모군소리도비우숨도 조롱도업시 붉게푸르게 명멸하는「라이트」를 하나도 노치지안코 여전히 일만잡한다

求學의길遮斷當코 飮毒後에自刎

生命은겨우붓드러

일립 오후렬시오분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일백삼십오번지 경서려관(京西旅館)에 하숙하고잇든 경성외국어학원(京城外國語學院)생도 강석빈(姜錫彬)(二九)은 다량의칼모친을 먹은후 깨여진거울로서 몸을찔르고 피투성이가되여 인사불성이 되여잇는것을 려관주인이 발견하고 즉시 부근에잇는 중생의원(衆生醫院)에 데려가서 응급치료한결과 겨우 생명을 붓잡엇는데 그자살의원인은 그는전남 광주읍 금정(光州邑錦町)팔번지에 본가를둔 향학열이 놉흔 소년으로서 자긔아버지는광주도청에단이며 집에는 상당한 재산이 잇슴에도불구하고 학업을게속치못하게하야 얼마전에자긔실형이 상경하야 구지 학업을중지하고 귀향하라고 말하고간후 일분의학비도 보내주지안허서 학교도단일수업서 세상을 비관한것이 흥에게원망스러운 유서한장을 써놋코 그와가티 자살을 하려든것이엇다 (사진은 강석빈군)

妙齡女出家頻繁

【仁川】꼿피고 새우는 봄도아니엿만 빈번한 묘령녀의 출분 ‖황주군읍내(黃州郡邑內)강경하(姜敬夏)의 처정성녀(鄭姓女)(二一)는 네살먹은 자식조차버리고그이웃 손정룡(孫貞龍)(二二)과 손을 잡고 인천을 향하야연애도피행각을하고 고양군 숭인면 전농리 (高陽郡崇仁面典農里)림영옥(林永玉)(二一)은 남편이출타하고 업는사이에 지난이십구일줄가하야 경인선소사역 근방에 잡복하엿다하야 수색원이제출되엿고 강화군(江華郡)부내면(府內面)관청리(官廳里)량우렬(梁雨烈)의조카 현창(顯彰)(二一)은 부량배의꼬임에빠저 경인지방을호유중이라하야 지난이십구일 인천서에 이상삼건의수색원이잇섯다한다

女事務員奇禍

일입 오전일곱시반경에 시내경성역아페서 본정(本町)일정목삼정(三井)의방에 일보는녀자 강갑순(姜甲順)(一九)이가 전차에서나려서 길을 건너가는것을 뒤에서 달려오든 종로일정목이십일번지 반모전(飯牟田)방의 조종범(曺鍾範)(二〇)이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가 발견하고 급히정거를하엿스나 강갑순은그만 압바퀴에치어 왼발에중상을밧고 인사불성이되여잡바진것을 곳부근「세부란스」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매우중태라고한다

天氣豫報

曇

七六四미리의 高氣壓은 朝鮮及 日本의 西方으로 떠지고 滿洲中國內陸은 氣壓이 낫다 七五八미리의 低氣壓은 南中國에 잇서서 東進中이다 滿洲朝鮮은 曇 日本의西部는 曇晴不定 東部는晴

昨日 最高 二五度二 最低 一〇度五
今日 正午 一九度九

朝報案內

끼ー다 世界一의伊太利 카라치에製造販賣 ... 安國洞六 洪命裕

鉄線荷造機 新案特許 抜き荷絶対防止 守屋式 萬鉄荷造機 代理店 湯澤商店 京城府岡崎町九 電話龍山五九八

돈버리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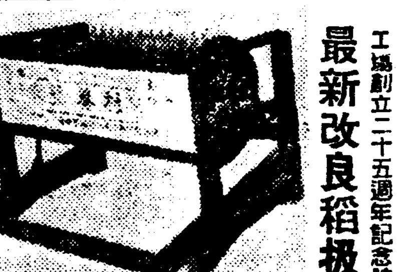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紹介

第一 ... 第二 ... 大阪港區市岡西二 電話西四八五 內外貿易株式會社

天銀鑛業社 京城府公平洞九番地 電話光化門二─四八二 一般鑛務 責任分析은 延專數物科工業分析研究室

自轉車材料 原價奉仕 信用問屋 特典付 製造元より直接皆樣へ ... 諸官廳納品 ... 東京市日本橋區 ... 日英商店

工場創立二十五週年記念特賣 最新改良稻扱機 特價十九圓 ... 合名會社 利善工場



싸고도잘박히는 オリンピックカメラB型 F6.3 ¥15.00 カタログ進呈 發賣元 旭物産合資會社 東京銀座西八ノ一 各地寫眞機店에잇슴

다른사람되기를 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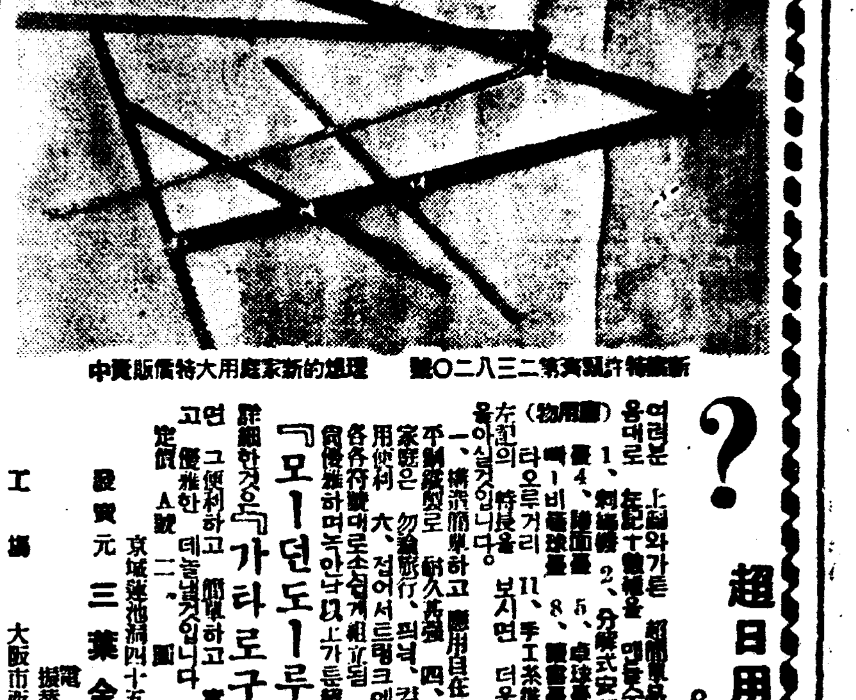
룡메로 장수는 말하기를『아ー나는 운수가 기박한자라 늘 개가리 도라다니기만 한다』하고 재봉침 가 주인은 말하기를『나는 잔뚝 여긔 붓터 안저서 바늘만 놀니고잇스니 종활발한 생활을 하엿스면』하고 게집종은 말하기를『나와 가튼 생활이 또잇슬가 늘 이리저리 주인의 마음대로 시키는 명령을 거행하기에분주하니』하고 주모는 말하기를『해도 길기도 하다 저 종들을 부리기가 참으로 괴롭구나』하고 사환된 사람은 말하기를『주인은 복도 잇지 자기 나오고시픈 때에 나오지마는 나는 아츰부터 저녁 까지 여긔서 괴로히 직히고만 잇스라나』하고 상점 주인은 말하기를『모든것이 다 이러케 승중한가 저 표지는 래일 낼것인대 은행에서는 한푼도 찻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나』하고 변호사는 무슨 복잡한 사건을 당하야 머리를 긁으며 탄식하기를『나는 차라리 석수장이나 되엿더면』하고 의사는 아츰 칠상에서 나오며 말하기를『벌서 종을 쳣다 애구 진절머리 나는 여긔서 한 二十리 떠나 잇스면 조켓다』한다 과연 세상 모든 생활이 다 이와 갓으니『그리스도』업시는 하나도 만족한것이 업고 즐거워할것이 업다 그러나『그리스도』잇는 사람이『그리스도』인이 되는것으로 만족할수 잇는이 만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루도사링푸스 類似粗惡品이있음으로商標에注意 軽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슴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外科 X光線科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好職業 男女適當 不問自宅執筆業 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超日用便利品을紹介하지요?



新案特許實用第二三八二〇號 理想的新家庭用大特價販賣中

여러분 上圖와가튼 超日用便利品으로 거짓말가티마음대로 左記十種類를 만들수잇습니다。
(物用途) 1、刺繡機 2、分解式安樂椅子 3、어린애침대 4、陳列臺 5、卓球臺 6、書架 7、室內用빨래거리 8、衣裳臺 9、洋服거리 10、 11、手工系統、其他利用自在하오 보시면 더욱미듬성잇고 便利한 特長을 가진것입니다。
一、構造簡單하고 應用自在 二、故障업고 三、不朽耐久로 四、使用範圍廣汎 五、家庭은 勿論旅行、피녁、캄푸、海水浴場에 使用便利 六、접어서트렁크에 넣수잇스며 七、各各符號대로조립케組立될 八、高級엑키칠노高價優雅하며노안나以上가튼超日用便利品의일홈은『모ー던도ー루스』라합니다。
詳細한것은『가타로구』를 請求하야보시면 그便利하고 簡單하고 實質的이며 經濟的이고 優雅한 데놀낼것입니다
定價 A號 二圓 B號 一圓八十錢
發賣元 三業金屬營業所 京城蓮池洞四十五 電光九五〇 振替京城二三〇五八番
工場 大阪市西區立賣堀通

진노ー 두통과치통에 第一藥

九月三十日밤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祭祝日、晝夜二回公開!!
◇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復讐大活劇 恩讐 全九卷 監督…알바드로렌氏 主演…작크홀트氏 助演…지네비ㆍ에부든랑 죠ー지ㆍ즈토ー
情에사는刻鐵腕의男이 恩讐의城을越하야 大戰爭中에 單身友의救援의決死의冒險
콜럼비아社超大作日本版 流轉哀話 가니발 全八卷 監督…윌러럭구氏 主演…테리도레시
大都映畵社超特作品 大活劇 旋風의荒鷲 全六卷 監督…大江秀夫氏 主演…ハヤフサヒデト氏 琴路美津子孃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一 桃花劇場

十月一日낫부터二日間短期公開 入場料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第八藝術大家君臨合同製作大雄篇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파社專屬十六脚本家共同執筆 파社七大監督共同製作 파社專屬十四大스타ー共演된大傑作篇
百萬圓어드면 (百萬圓을보았다면)
人間과黃金、黃金과人間그交錯의岐路에서彷徨하는人間들의비극은
豪華的映畵 松竹키네마超大作品全發聲 結婚興奮記 올스타ー總動員 監督撮影城戶所長의大努力作品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廿六日より大封切 映畵の秋!! 傑作名篇洪水の秋!! その一しほ絢爛たる中を其の代表傑作を掌握しこの壯なる大行進!!
一、下加茂特作サウンド版 原作脚色監督 星哲六 主演 結城一朗、大內弘 △猪太郎時雨 吹いて吳れるな夕風夜風俺等浮世の渡り鳥!ドスの冴えた血の雨降らす稀有の股旅物!!
二、アリート社超特作日本版 監督 チエスター・フランクリン 主演 モント・ブルー △鐵火の巨人
三、蒲田超特作サウンド版 原作 川端康成 脚色 柳井隆雄 監督 佐佐木康 主演 本郷秀雄、水島光代 △舞姬の暦 蒲田が新しく生み出した新コンビ!! 本年度新人中其の可憐な容貌と、颯爽と一躍認められし本郷、水島、佐佐木の夢心コンビが常に夢見勝な若人の淡い憧れを描く秋にふさわし青春哀愁篇!!。
浪花館

家庭

어린애업는법도 연구해볼일이요

—허리와다리가휜다는말은 공연한소리—

업는사람에게달렷다

서양의 어린아히들은 동차(童車)속에서 크지만 조선의 어린아히들은 어른의 등우에서 큽니다。어른의 등우보담 동차속이 더 편하고 조흔것은 물론이오나 재래의 습관을 아주도 업슨 버릇이 만습니다。더구나 구차한 사람으로 말하오면 무슨 돈으로 동차를 사며 또무슨 겨를로 그 동차를 끌고 다니겟습니까? 그저 우는 애기를 두리처 업고서는 밥고 짓고 빨고 김도 매고 방아도 찌어야만 겨오겨오 군간한 그 생활이나마 해 가게를 되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의 습관만을 탓할 껏만도 아닙니다。우리네 애기의 다대수는 아모래도 동차보담 어른의 등우에서 클 팔자를타고난 것입니다。

어린 아히들을 방안에서안고 키우는것 보담은 업고 다니며 바람도 쏘이고 햇볏도 쏘이어 줌이 저항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그래야 어린아히들도 방에서 안는이보담 잠도 잘자고 밥도 잘 됩니다 업는버릇은 어느 편으로 보나 조금도 낫븐 버릇은 아니올시다 될수잇는대로업고 바그로 내돌리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흔히 애보는 아히로 여나믄살먹은

게집아히를두어

가지고 그아히에게 업히지를안습니까? 업히는 아히로보아서 딱딱한 어른의 몸보담은 차라리 연약한 게집아히의 목이더 조흘습니다 그러나 또 흔히 볏을 쏘일께라 바람을 쏘일써라 어린 아히를 업히어 가지고는 방안에서만 흘아다니게 하지 안습니까? 바람이정 세거나 볏이 정 뜨겁지안한이상 방ㅅ속에 가두어 두는것보담

한데로내보내는

것이 더 조습니다。

×

혹 애기네를 업히어 버릇하면 가슴이 눌리느니 척수가휘느니 다리가 굽느니 별의별 렴려가 다 만습니다。상식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그도그럴듯시픈 렴려입니다。그러나 첫재로 가슴이 눌린다면 애기가 아플것이 아니겟습니까? 그러케아풀것 가트면 애기가 왜 어부바를 하려고 덤비어듭니까? 그뿐더러

백일안의애기라

든지 뼈가 휜다는병을 가진 애기라든지는 모르되 그 이외의 애기네는 척추가 휜다든지 다리가 굽어 든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로 업습니다。일본의 의학자가 전문으로 연구하야 본결과 그런 렴려는 일소종긔우에 지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들어 낫답니다。신식물이 듬신 절믄 어머니들은 조금도 안심하고

애기네를업히어

내 노호십시요。그래서 다리가 굽거나 척추가 휘지 안할것을 대단스럽게 보서오리다。

×

그러나 아히를 업고서 고된일을 한다는 것은 그아히에게 조흔 일이 아니다。폐할수 잇는 데까지 폐하는 것이 물론 조습니다。그뿐이아니라 게집아히들에게 아히를 업히어 합부로 내 보내면 거긔에는

여러가지폐해가

붓습니다。첫재로는 업힌 아히보담도 업은 아히의 재미를 딸아 돌아 다니기가 쉽고 둘재로는 말못하는 어린 아히를 그아히가 뚜드리고 꼬집어 학대하기가 쉽고 셋재로는 군것질이나 욕이나 못된 버릇을 가르키기가 쉽습니다。그러니까 내보내더라도 눈에 뜨일만큼 가까운 데로 제한하고 또 내보내 노코서는 참참히 내다 보아야 합니다。애보는 어린아이를 업히어 내보내는 데는 씁때업시 다른 렴려를 마시고 오히려 이런짓을 렴려하셔야 되리라고 압니다。

아이들이조와합 샌드위취

가정에서 엇기만물수잇고 어린애기들이 무척조와하는 얼골모양처럼만든 샌드위취는 이러케만듭니다。

보통빵이든지 호팡이나 다조습니다 먼첨 빵을 엷게베어서 될수잇는대로 크고 둥글게 만드러서 칼로 눈,코,입,귀,이럿케 구녕을 점어넘호형의 양편에 지금만든 얼골형 빵을 붓치면 얼골은 누르고 눈과 입은 붉어서 아해들이 아주자미잇서하고 조와합니다 호팡일때는 『치―스』를 속에 너흐면 조습니다

曆

十月二日 (水) 舊九月建丙戌(小)初五日 辛亥金·壁·滿

◉祭祀에宜합
◉寒露九日(舊九月十二日)
◉霜降廿四日(舊九月廿七日)

家庭醫學

책독을어지할까요

問 저의집식구가 약이년전부터 세사람이(四十五세 四十四세 十二세) 보다 채독으로 만흔고생을 밧고잇습니다 가세가 빈한하여 혼자버려 여서식구를메입니다 무슨약을써야 되겟습니까 (달암生)

答 우리조선에는 흔히한집안전체가 채독에걸니는수가만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가치하난관계입니다 당신가치 온식구가채독이라하니 못기만하오나 가정에서 [illegible] 니다 극약인고로 병원에 반다시 입원치로하여야 되게스습니다 큰병원에가서 무료입원과가 잇스면 상의하야 보시지요 (大學病院小兒科 [illegible])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9)

張德祚 作 安夕影 畵

숨이 터에 닷도록 급한비탈을 올나가야하는 사직동의 조고만 전세집에서 향회는 십년만에처음이란는 이해의 겨울을 지낫다。

간살이 단정한 다옥정집에서 손을 올리면 대일듯한 남은 판창골다리룰한 이집으로 옴겨왓슬때에 그는 유파에서 해방되든때와 뚝가튼 『자유』를 한번 더 느끼엇다。

그러나 나희아래인 사내를 남편으로 섬기는 생활이란 결코 생각하든바와가티 즐거운 생활만은 아니엇다。

그는 아무리추운날이라도 아츰일쯕 일어낫다。

다옥정에잇슬때 사내를 불러마다 맹세하든말과가티 새살님을 시작한이상 예전처럼 불분명한 나날을 보낼생각은 털끗만콤도 업섯스나 옥이하나를 다리고 의지못한 진일 마른일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노릇이 아니엿다。

영감의 동정으로 어더가지게 된 이 집이라는것부터가 벽이 얇고 바람구녕이 만흐며 비탈집의 통폐인 물이 나는때문에 향회는 겨우내 발끗흘 꽁꽁얼리고 차마자라까지 어름을 달고 대것다。별로 가진것도업시 또 다시외로운천지에 쫓겨나는 향회를통정하여 영감은 슬그머니 몃백원의 현금을 쥐여주엇다 꼿까지 관대한 그는 향회와 인연을 끈흔후에도 얼마간 터다옥정집에 머물러잇스라 하엿스나 첫재 동네가 창피하여 견델수업슴으로 되도록 말성업는곳으로 피하여 온다는것이 이집을 사백원에 전세로 들엇든것이다。

집을 엇고 남은 돈은 한겨울동안 세사람의 생활비가 빠듯하엿다。홍운은 극장에 손님도 별로 고 또 그놈의 토―키―때문에 악기가 필요업서젓다고 종일을 방안에만 들어안저잇스니 위선 생활에 몰릴것도 눈앞일이나 남의 눈에도 어떤관계에잇는지잘 알수업는 이세사람의 모양은이 상하엿다。

더욱이 요사이는 며헤째 그리크게 낫타나지안튼 병증이 재발하여 한주일을 누어잇는 안주인과 따라 사내의 시중까지 들지안흐면안되는 게집에는 다가려 사내의 눈치가 점점 달나지는것을 느끼엇다。

『그럼 돈이남어잇슬동안 병원에라도 가보지』하혈을 몸씨한때 향회가 울듯한상을하고 누어잇스면 사내는 친근한듯이 념려를 해주건만 그는 옥이 혼자를남겨두고 입원하여야할 이별을 꿋칠생각은별로 업섯다。

더욱이 요사이는 한주일에 한두번의 외방은 의례히 잇슴직한일로 알고잇는 모양이니 게집의맘이되여보면 무슨 고생사리보담도 제일 슬픈일이엇다。

『나희가 나희이니 그만 일이야!』하고 그런사회에 익숙한 향회는 보통여염녀자들처럼 짓고 까불고 할생각까지는 업섯스나 처음으로 살림을 시작할때 사내의 정열을 생각하니 원망스러웟다。

해가 바뀌자부터 사내의 울홍한듯한 시선은 더욱 게집애에게 자주쏠리며 흐흐사람이 놀너가는 백회점가튼곳에서도 목도리가튼것을 사고하여 옥의환심을 사려는모양이 력력히 나타나기 시작하엿다。향회도 표면으로는 우슴을 띄우고 옥에게 맛는 보통빈가튼것을 끌으는체하지만은 그의 처녀다운 부드러운 살결이며 타령잇는 목소리를 생각할때 불가리 치밀어 오르는 질투를 금할수가 업섯다。

그는 실낫가튼 인정에끌리여옥을 뿌리치지못하엿든것을 후회하엿스나 따ㅅ흘수는업는 일이엇다。

가끔 가다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몸을팔든 여자는 그만이거든 하고 눈물을 찌꾸리는 사내의 마음을 알밉거니와 사내의 내의까지 맑가케 빨아내는 게집애의 꼴도 도로혀 자기를 얏잡아보는것가타야 분하엿다。

그는 사내가돌집이큰 옥이에게는마즈리라고 꼼나내는 연두모본단저고리감을 바다쥐며

『이건 내가해입어야지。난참여두저고리라곤업서서』

一日 (火曜)

◇午後六時『기미가요』와唱歌 水下洞 公普生徒
◇同六時二五分 始政二十五週年記念講演(第二日) 始政二十五週年을當하야 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朝鮮總督官邸로부터中繼(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始政二十五週年記念日을마즈면서 朝鮮總督陸軍大將 宇垣一成 記念講演 朝鮮호텔로부터中繼(朝城으로부터全國中繼) 朝鮮始政二十五週年에際하야 海軍大將子爵 齋藤實
◇同八時 朝鮮歌謠의變遷(京城으로부터 全國中繼) 一、歌曲 二、雜打令 三、二八靑春歌 四、新調아리랑 五、處女總角 金啓泳編曲 노래 金水晶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短簫 金永頫 杖鼓 金一宇 노래 姜石燕 노래 姜弘植 笛 池龍九 大笒 金永根 觱篥 高載德
◇八時三〇分 音律 一、長春不老之曲 二、興民樂 DK管絃團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二日 (水曜)

◇午後〇時五分(東)獨唱과管絃樂 一、管絃樂 歌劇『魔笛』序曲…모―르트作曲 二、獨唱 가、엔헨의詠唱 歌劇『魔彈의射手』中에서…삐삐作曲 나、月待草 村田米四作詞 草川信作曲 山田耕作編曲 다、嘆息의세레나―데…토세리作曲 妹尾幸陽作詞 三、管絃樂 匈牙利風…그라즈노프作曲 內田元編曲 四、同 브레타―뉴의舞踊組曲 코리가―느中에서 삐도르드作曲
◇同一時五〇分(東)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戰―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
◇同六時『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一)』 滿洲國으로부터시베리아 中央高普 崔福鉉
◇同六時二五分 講演 故寺內總督을追慕함 宇佐美勝夫 譯講 田中德太郎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職業紹介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週年記念講演(第三日)『佛敎復興에對하야』 男爵 李允用 經學院大提學 鄭萬朝
◇同八時 民謠五曲 一、離別曲 二、成功男兒 三、靑春歌 四、사발가 五、멋타령 高載德 大笒 金永根 細笛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申佐熙案 안해의貞操 一場 配役 李一洙……申佐熙 玉鄕……金福鎭 金鋼求……徐康成 어멈……白洪鎭 劇藝術研究會 指揮 柳致眞 效果 效果班
◇同九時〇〇分 伽倻琴散調와並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滄浪歌 唱劇調沈淸歌 姜太弘 鼓手 丁元燮

三日 (木曜)

◇午後〇時五分(東)木曜콘사―트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밤(栗)이야기 徽文高普 李軒求
◇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二) 滿洲國으로부터시베리아 中央高普 崔福鉉
◇同六時二五分 歷史講座 江華島事件 金道泰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週年記念講演(第四日) 中樞院參議 張憲植 商業銀行頭取 朴榮喆
◇八時〇〇分 맨돌린合奏 一、차르다스(匈牙利舞曲)마츠키作曲 二、古典的組曲…암부로슈스作曲 1、前奏曲 2、메누엣트 3、사라반다 4、가봇타 5、파―지베라 三、1、계수나무(桂)나래…마넨테作曲 2、알밤의한장… 城大 맨돌린部 指揮 山野上牧夫
◇八時三〇分 古談 信鶴 金錫九
◇九時〇〇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將遊歌 三、小春香歌 四、平壤歌 五、노래가락 鉛牧丹 李竹葉

劃期的! 會心名盤!!
Columbia
순풍에 돗을달고 (四〇五九一) 蔡奎燁

OKEH
흙에서나는우리의民謠
이야웅打鈴 (一七九八番)

角耳式
ゴムベルト
ハイフレックス
チユニアー
コマンター
ヒーロー
在庫豐富 湯澤商店 京城府岡崎町九 電話龍山五九八番

朝鮮日報社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

겨울물건대매출
十月一日부터
장차치운겨울이닥쳐옵니다
겨울준비는다되셧슴닛가
대매출도가지가지
방충(防虫)방축(防縮) 마사―모직메리야스선전매출
최신류행쇼―르、핸드빽매출
넥타이、와이샤쓰매출
신형전긔스탠드매출
최신유행신사숙녀양화매출
동절화장품각종매출
조선八景그림엽서매출
아동용품、수예품매출
조선물산매출
유긔반상긔매출
二、五〇錢부터
一、五〇錢부터
一、五〇錢부터
一、九〇錢부터
六圓부터
매출긔간중신류행레코―드발표
和信

九月廿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七時 特別大興行
◆世界人氣를獨占한 우리들의샤리、템플少女主演
뽁스社超特作日本版 빗나는눈동자
샤리、템플嬢의主演篇、只今에샤리템플이여러분께소개합니다 다어엽부고、귀엽고、얌전하고、영니하고똑똑하고、상냥하고도――
◆R.K.O.라듸오超特作日本版 샤리뿌렌、잘스스타렛 월리암、좌넘主演 流線型超特急
世界初有의最大스피―드戰慄冒險篇、映畫創始以來驚異的傑作
全鮮第一映畫殿堂 國產映畫 一篇 國成社
當る一日特別大公開 『本週より』晝夜三回興行 第一回 午前十一時半 第二回 午後二時四十分 第三回 午後七時
初秋映畫鑑賞ジーズンに放つ東西二大名篇同時大公開!!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督級作 文豪 山本有三先生原作 脚色 山內英三 監督 西鐵平 撮影 二宮義曉 オール・トーキー
嬰兒殺シ 麗花森靜子 主演 松本泰輔·毛利峰子 助演 東榮子·河合靜子·金澤コンチヤン 共演
女土方お淺の惱み!生みの子が殺めに、彼女が犯せる罪、そしてその告白!これぞ嘘らざる魂の叫で!!
佛蘭西P.B映畫社超特作 原作 エグトル·マロー 監督 新鋭マルク·アレグレ
にんじんの ロベール·リナシ少年 主演 ヴアンニ·マルク 助演 ドルヴイル
緣なき兒
まだ見ぬ母を尋ね山河越える三千里、少年の愛を素朴で純情な佛蘭西名篇!!
永樂町 電本二三〇 中央館

十月一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畫鑑賞週間
每日三回興行 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下席十錢 階上席十五錢
新興키네마社提供 嵐寬壽郞프로덕 金超特作 時代劇 相馬の金さん 全八卷
山本松男氏監督快心作 大劍劍 嵐寬壽郞大熱演 三郞淡路千夜子特別出演
江戶時代末期時世の滅亡을當하야가는者들을爲하야上野彰義隊에加하여最後의一線을직히여主義와兄弟愛에懊惱의뛰는時代劇異色篇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西部活劇 巨匠헨리하사의이監督 白馬王國 全七卷 란돌프스코트氏시리·묘·朗 主演
파라마운트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活劇 四一九號室의女子 全八卷 아레키산다·홀氏 죠―지·삼스氏 協力監督 젠스·딍氏 크로리아스챠드嬢 主演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七五三番 第一劇場

九月二十八日부터特別大公開 階下席十錢均一
씨―즈大衆娛樂名番組
大都映畫巢鴨特作猛闘現代劇 原作·和田敏三 脚色·外山鳳子 大江秀夫……監督作品
快腕火花を散らして 東鄕久義……猛闘主演 北見禮子、宮城浩二 松村光夫、小笠原隆 共演
메도로映畫社가全機能과最高스타푸롤動員식혀完成十大特作篇日本版 메도로골―도우잉超特作 巨匠…하와드호―구스監督
大戰悲話『今日かぎりの命』 게리―구파― 죤·크로포―드……主演
大都映畫巢鴨特作時代劇 原作山本三八、監督中島寶三 阿部九州男、琴路……主演
『颶風の劍士』
櫻井町 本局 大正館

賤待되는 朝鮮

朝鮮人의 自己貶下

① 安在鴻

×

예적에 眞寶三藏이가 하든이가 阿彌陀法을 行할새 어느절(寺)에 이르르니 절에서 大會를 베푸는데

(門)직이가 三藏의옷주제가 오죽지못한것을 보고 門을막고 안드렷다 여러번이나 드러가보려다가 로심스러운 꼴대를사고 三藏은 허름어시 남은옷을 벗어버리고 조흔옷을 빌어입은後에 바른기침을 한번하며 떡버티고들어섯다 門직이는 고개한번굽신하고 어서들어갑시라고 위해주는것이엇다 가튼 三藏이지마는 옷주제가 팔이시나왓든탓에 無數한窘待를바덧고 옷이 조향는그놓로 대번에 치다어다보며 드리모시엇든 것이다 죽 가진 珍羞가 다나오든 饌도 비위가 좋을리잇든지 가진옷주지을 가져다가 먼저 그옷에 供養하엿다 남들이 못기를 「그게웬일이오?」 대답하되 「내-여러번 오되 도무지 안드리더니

(이)제 옷조흔덕에 이자리에 왓고 또 가진음식을 다밧게되니 어찌이옷을 안위하겟소」?

×

옷이추려해서 푸대접을밧고 옷이훌륭하매 억개가 옷속로 혹 優待를 밧는것은 今古東西 人世의 常事이라 이러니저러니 뇌가리고잇스면 그는 아마 망녕의 벗김네다 그러나 옷의美醜이 主人의賢愚가 아니오 옷의所屬한 主人의民族이 나흔까닭으로 세상에도 드물은賤待를 밧는것은 결局劣敗者의 耻辱이오 勝利者의 病的인 優越感을 말함이라 그는 天下의 恨事가 아니면 아니것이다 이를려면 바루 엣해前까지도 上海의萬國公園에는 온갓사람이 自由로 드나들되 『개허고支那人』허고는 못들어오다는

(暴)侵暴敵한 規則이잇서 洋服이나입으면 中國人도 들어기되 청服을 입고서는 통신을 못하든것이다 淸服외지체가 그러커니와 그러면 바지 저고리나 치마와 두루마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푸대접을 밧는가? 여기에 두말이업다 나는 팔禮을 흔히란다 洋服에 넥타이라도 밧듯이 매고 앉졋스면 車掌이 가위를 들고「어데를 가시옵니까」?(註日 도찌라데 고사이마쓰까?)언제는 物色이 아니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如前히 점잔은체하고 安心코안젓더니 車掌이와서 『어데!요?』 이는 個人의 常하는賤待가 아닌지라 넥다 일어서며 『괴한놈』!하고주먹으로 볼치를우리기로 하엿섯다 但이것은 내-아직것實踐치못하엿스니

(半)生중안 아니해본는 前例를 拿하게될수도업고 債惡가생하야 한번의 서거든宗矢로 되고 마는것이어섯다 아닙그外人에게 당하는 이따위의賤視는 이미 헤일수업거니와 最終으로 朝鮮人의 朝鮮賤視는 참으로 慨嘆할이다 昨日 黃金町의 某所에서 朝鮮人거-지가 말끄테「이까짓朝鮮놈네에와서」云云하는것을 目擊하엿다 朝鮮이賤待밧는 其他實例의 하나이다

×

春間 市井의일은 이미도힘수업고 賢者와 先覺者로 남달리 矜侍하는 一部의사람들도 여간이아닌 朝鮮賤視이니 權君 世宗大王으로부터 李舜臣 丁茶山등은 漢字說文가튼를까지가 요새한참 그冷嘲笑의곤형으로되고 흔은

(非)才하는者에 그분들은 한번비치엇다는 對象자신이잇는것이 現下朝鮮의한편의風潮이다 그러나 이는現下朝鮮 歷史的時期에 立脚하야 最善히檢討하여 보더라도 [illegible] 그歷史的業績을 [illegible] 丁茶山을 [illegible] 이런것은 한번우숨에도 차지안는듯이 마구하는것이 그들一部의 態度이다 이는反覆時代하고 再三辨明하기까지도 갈것이업시 斷然그淺薄한 非現實的態度임을 指摘하지 아니할수업다

學藝

國際法의 法理論的基礎

——그學說史的考察에서——

(六)……申基碩

國際法行爲中에서 가장 重要하고 代表的인 條約締結의 行爲를 불것갓트면 國際法은 條約締結의 行爲를 國家의 特히 指定한 機關의 權限에 委任하고 그結果發生하는 事實에法律的 效果를賦與한다

그러므로 條約締結의 法律的權限은 直接으로는 國內的基礎에잇는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이러한國內法的基礎에서 成立된 條約의 法律的效力은 結局은 國內法에 基因하지아니하고 上級法秩序인 國際法에 基因한다。條約法뿐아니라 慣習法에잇서서도 그러하다 이것을 國內法의 見地로 보면 委任된 國際法規의

(具)體化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야 國內法的手續의 展開에 依하야 國際法的關係를 規定함에잇서서 必要한 機關을 設置하고 國際法을 具體化하는 手續을 取하는것이다。

以上에서 國際法과 國內法의 相互關係에 關한 諸學者의 說을 簡單히 紹介하얏거니와 다음에는 이에 對한 諸家의 批評과 筆者의 片見을 附記하고저한다。

『트리펠』의 二元的 構成은 國際法과 國內法이 別個의 規律體系에屬함을 主張하는한便 어느程度까지의 國內法에對한 國際法의 優位를 認定하야 徹底한二元的構成이라고 볼수업스며 徹底한 二元的構成은『펠드로쓰』가 批判한바와가티 二元的構成은 二重의當爲(Sollen)의 平面을가진 構成이다 國際法과 國內法이 相互獨立의 規範體系로서 把握하는것이 理論的構成으로는 不可能한것이아니나 國際法을 國家의承認으로서 規範力을가지게되는한便 모든國家가그法秩序를 主體的으로 規律한다는 通說에依할것가트면 國家는 서로矛盾되고 또自己에對하야相反하는 義務를 課할수잇는 두個의 法秩序에

(同)時에 服從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여 統一的이여야할 國家意思에 矛盾을가저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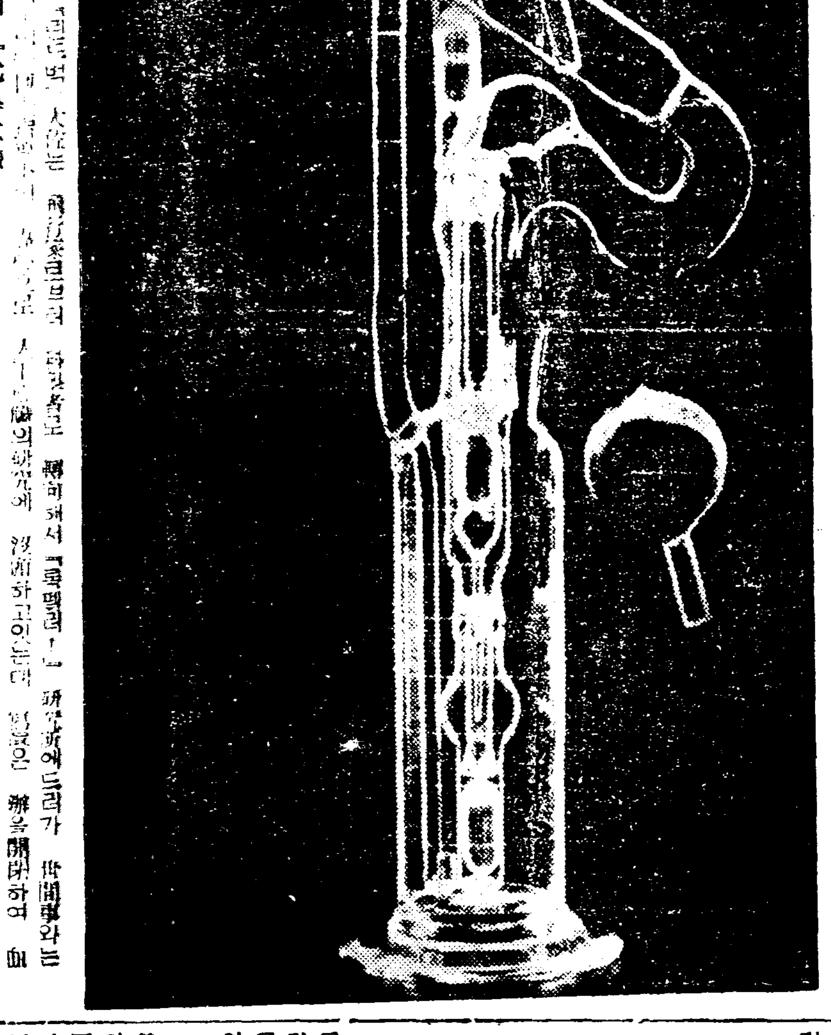
또國內法優先의 一元的構成에 關한『펠드로쓰』의 理論은 國際慣習法을 度外視한것이同時에 實證的國際法規를 說明하는데困難을늣기는것이다 今日의 國際慣習法에서 國家는 그政體 其他 憲法上의 變更에因하야 消滅또는變更하고 全然新國家가 成立되엿다고 認定될變動이 잇合에도不拘하고 國際法的으로同一性을 持續한다는것이라든지 國際法團體에依하야 아즉 承認을맛지안혼 新國家의 國際法에依한 拘束의 事實等은 國內法優位의 一元的構成으로는 說明하기困難한바이다

國際法優位에 依한 一元的構成이 世界大戰後의 國際主義의 擡頭 國際聯盟의 設立其他의政治的要求에 適用하엿스며 이러한 經驗的事實에 根據를둔것은 察知할수가잇다 그러나 今日의 實證的法體系를 觀察하면 國際法에 違反하는 國內法의

(存)在의 可能性과 現實性을 認定하지안흘수업스며 國際法秩序의 發展의現階程에잇서서는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區別을 全然無視하기는 不可能하다『크랍베』와가튼 國際的性質을가진 利害關係가 增加하에따아 法制定의 中心點은國家로부터 恒常擴大的傾向에잇는 法的協同體에 移動하여간다고는 할수잇스나 近代國家의 主權者觀念이 全然抛棄되고 이른바世界國家의 單一國家를 形成하는때에야만 國際法은 國家法과同一한基礎 同一한內容 同一한主體를가질수잇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現在의 國際法의 統一的法律體系에서의 性質을闡明히 하여주는것은못된다

이러한意味에서 國際法優位論의 絶對性은 否定되여야 할것이다 國際法이 國內法에 優位되는 一面이잇는同時에 分立性의 一面이잇는實證的見地로부터 『國際法優位의 一元的構成』이現在의 國際法의 法律的地位를說明함에 適當한

(理)論이라고生覺한다 이제 그根據의 理論的展開는 未熟한 理論을 披瀝함보담도 他日의 研究에 기다리고저한다。 이小論을 씀에當하야 大澤章氏의『國際法秩序論』田中耕太郞氏의『世界法의理論』卷三에 依據됨이 만흠을 附記한다。



愛兒의 목언어서 心境이變化한『린드벅』大佐는 飛行家로부터 研究者로 變해서『록펠러ー』研究所에드러가 世間事와는 一切交涉을 끈코 [illegible] 研究에 沒頭하고잇는데 [illegible] 血液의 人工循環을 圖하는『린드벅』式人工心臟

考證行脚

(4) 海西의名勝、白川

方鍾鉉

그러나 여기서 한다리江을 大橋浦로 漢譯한것이나 또는 한다리를 大橋로 記錄하게되것은 別로 큰 문제가 되지안는다 그것은 크다고하는

(大字)는나 或은 마라고하는 多字나를 古書에는 『하字로 表示한것이 여간만흔것이 아니다、簡單히 一例를 들어도 아래와가다

한비사우리로(大雨三日)(龍歌六七)

한여흘(大灘 龍歌卷五○27)

한疑心(象疑)『蒙山法語』祖日演了秘 『稱讚錄』

芍藥=大朴花=한박꽃『採取月令』

大薊=大팀蓁=한거귀 『同上』

이박게 오늘도 그殘形은 만이 찾을수 잇으니 假令 한길(大路)이라든가 항소(大牛)라든가 또 한물(漲水)가튼것들은다 그뜻이 大字를 意味한것임이틀림업다 다만 여기서는 多字를 意味한 部分만은 그例를 省略하기로 한다 그러고보면上記한 한다리를 大橋로 漢譯하야쓴것은 조곰도 疑心할것이 업고 오직 이 한다리라고하는 한字가 果然 한으로만 사람들에게 늘

(發音)해왓든가하는것이 여기에 남은 문제로 잇슬것이다 自古以來로 變함이시 늘 한으로만 불리내려와다고하면 이 이름은 白川과 조금도 關係잇슴을 생각할 餘裕조차 주지안는것이지만도 이박게 여러가지 例에 비치어보아 이것도 어떤變遷이 經過한것이 나타나보이므로 여기에 그變遷過程을 차자보게되는것이다 그러면 몬저 白字를 한이라는 글字로 表示한것이 前에 잇는냐하는것이 문제이다、그러하야 『鷄林類事』를차자서보면 아래와가튼 事實을 알게되는것이니

白日漢

銀日漢歲

雪日漢嫩

白米日漢菩薩

이表示方法이라는가 音을 取함이 正確與否는 잇을망정 이것이 全然 虛僞이 아닌것만은 今日에 使用하고잇는 白字의뜻을 보아서도 可히 推測할수잇는것이다 그러고보면 한다리를 大橋 或은

(漢橋)로 表示할수잇고 더 나아가 이것이 白字의뜻을 가진것이라고 밀우어볼수가 잇게까지 되는것이니여기서 白橋라고도 쓰게될수잇는것이 漸次 나타나게되는것이다 그러나 좀더 그說明을 確固하게 하는 實例를 만히 들지안으면 안될것이다。 여기에우엇보담도 한다리의 한字가 白字와 關聯이 가장 깁게엿든것을 證明하는것은 아래의例證이다、龍飛御天歌卷二에 보면

碧瀾渡俗稱白碧한다리在松京宣義門西三十里其源出黃海道遂安郡東彦眞山至平山府東爲箭灘살여흘至中峰峴西爲猪灘돗여흘至牛峯縣東爲[illegible]灘南爲助邑浦조울개過白川郡東爲金谷浦금곡개南爲碧瀾渡入海

이와가튼 文句는 한다리의 前稱이 한다리이엇든것을 더一層分明히 證明하는것이다 卽 한다리가大橋 漢橋 그보다도 먼저 白橋이라고 불릿것을 알수잇는 關係에 이 한다리와

(白川)과도 그名稱上 關係이 깁흔것을 우리는 잇지 안흘수업게되다 다음으로 이 白字가 古語에서부터 오늘날 使用되기까지에 變遷되것을 보면 아래와갓다

힌므지게 (白虹) 龍歌七章

힌쇠 쇼 (白牛孔) 楞嚴經七[illegible]

힌뵈옷 (白衣) [illegible]

白힌빛 [illegible]

힌무리 (白馬) 杜詩諺解

만히최고 (多白) 無寃錄諺解一

힌바폿 (白[illegible]) [illegible]

힌털 (白毛) 東醫寶鑑

白힌색 [illegible]

白흰빛 [illegible]

近代山岳史話

北岳山 (10)

大隱岩下南袞舊基

湖岩

儒林官附近에서 바라보면 白岳기슭에 巨岩이 纍纍하게 올려 잇는것을 볼터이니 이것이 곳 有名한 南袞舊基의 後園에 잇는

(大隱岩)이란다 지금으로부터 四百餘年前에잇서 中宗己卯士禍라고하면 누구든지 [illegible] 歷代冤獄中에도 가장 [illegible]다 官僚派에게 몰리게된 儒林派는 趙靜菴가튼 名賢을 비롯하야 [illegible] 거의 一網打盡하게되것은 오늘날까지도 痛憤히 녁이는바이어니와 그當時 官僚派의 巨魁이요 이士禍의 張本人으로 꼽피기는 南袞과 沈貞이다

(儒林派)를 몰아낼때 그凶計의 하나로 극이 宮人을 꺼고서 中宗께 讒訴하야 宮苑에서 심지어 上苑의 樹木나무의 닙에 甘汁을가저 『走肖爲王』의 四字를 써서 山虫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으삭여 먹게하얏다 그닙을 中宗께 奉覽하매 넘겨서도 깜작 놀라시사 이런단 말이나 하시고 마침내 儒林派에게 大鐵椎를 내리기로 決心하셧다한다 이것이 과연 事實이라면 그네의

(辛辣한)手腕이 얼마나 하엿든것을 이나 一例에서 짐작할것이 아닌가 南袞이 儒林派를 몰아죽이기 때문에 小人의指稱을 免치못하지만 그도 最初動機로 말하면 꼭모다 殺害하려고 한것은 아니요 몰아내고서 舞臺를 獨占해볼가 하든것이 그만殺獄이 일어남에 이르러는 自己손으로 노흔 불을 自己손으로 끌수업시되엿다 그는 後悔莫及하야 그가 죽기前에 平生지은 自己詩文의 原稿를 모다 불살으고말엇다 한다。이로써 그의

(靑春을) 推想할것이다 그는 少時에 挹翠軒 朴誾과 容齋李荇과 莫逆한 詩友이엿섯는데 挹翠軒과 容齋는 매양 술을가지고 白岳기슭에 잇는南袞의집을 차저가서 놀새 그집後園에는 泉石의勝景이 잇섯다 그러나 그집主人인 南袞은 承旨로잇서 항상 새벽에 入闕하얏다가 밤에야 仕退함으로맛나 볼수가 업섯다 挹翠軒이 하루는 主人을 기다리다 못하야 戲弄으로 그집뒤 옷둑소슨 바위를大隱岩이라 이름짓고 그집밋헤 흘으는 小溪를

(萬里瀨)라이름지으니 이는대개 바위와시내이가 모다主人과 何等因緣이 업는것을 이름이다 輿地勝覽에는 大隱岩、萬里瀨는 모다 白岳山麓 곳領議政南袞의 집뒤에 잇스니 朴誾이 이들의 이름을 짓고 詩로써 울쾌다고 하엿다 이로보면 大隱岩은 확실히 南袞의집 後園에잇고 또 그를大隱岩이라고 命名하게된 由來가 어떠한것을 알려니와 大隱岩이 엇재해서 이와가티 有名하게되엿든가하면 따른까닭이아니라 挹翠軒의 詩로말미암아 世間에널리流傳된때문이다

(挹翠軒)은 말할것도 업시 燕山朝의大詩人으로 二十七歲에 夭折하엿스나 或者는漢陽朝五百年의 第一이라고까지推稱하기도하는바 그의命名한 大隱岩은 그의율픈 詩句를따라 오늘날까지 알려지게된것은 藝術의힘이 얼마나 偉大하다는것을 요조그만 일에서도 볼수잇는것이 아닌가 南袞은 自己의詩文을一炬에 부처 自己이름을덜수잇는대로 감추려고 努力하엿스나 그집뒤의 大隱岩이 남아잇서 當時南袞의

(風流를) 속삭이고 잇는데 어찌하랴 宜에朝詩를 지내면서 詩를 읊떠갈으되 人爲孤竹隱昌이 일옥南袞의 집러 門前車馬散如煙、相國繁華未百年、[illegible] 古增遺외라 하엿다

意味와主題

午前의詩論技術篇

(8) 金起林

現代에와서 詩에서 意味가 虐待되엇은 詩의獨立에의한要求와 無關係는 몃 말에대한 罪惡의 不信에서 온다는것은 아메서 말하엿지만 다시나는 그

(原)因의하나를 現代의人間性의 文學的趣向속에서도 發見한다。 現代에는 明白히 非人間性의藝術을 主張한 流派가 잇섯다。

例를들면 無機的인藝術 幾何學的線等을 尊重하야 不連續性의 理論을세운『T·E·흄』과밋 그의古典主義를 傳受한『T·S·엘리옷』의 個性逃避의說이 바로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勿論 人間性과 뚜렷하게 對立하는 現代文明의 『메캐니즘』과 신통하게도 符合하는 說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古典主義는 現代文明의

(反)映者일지언정 批判者는 될수업다。「엘리옷」의 詩의 限界는 여기잇는것인가한다。

그런데 意味는 말의 內部를 흐르는 피라고 생각한다。 그런까닭에 意味를 빼여버린 뒤의 말의 堆積 또는 行列은 신기하게도 『흄』이나 『엘리옷』等이 바라는 幾何學的인『빠잔티옴』의 『모자익』에 가까우나 암만해도 墓地나 博物館박게는 聯想시키지 안는다。 그것들속에 淸新한 피가 흐를때에 그것은 비로소 死骸이기를 끈치고 우리들의 人間性에

(呼)訴해 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意味의 再發見 — 그것은 人間性의 復興과도 이러케 關聯하는것이다。

『파운드』는말하엿다。

『音樂이 舞蹈로부터 너무멀리떠려저잇슬때 그것은 썩는다。 詩가 音樂에서 너무멀리 떨어질때 그것은 시드러버린다』 고。나는 차라리 詩가 意味로 부터 멀리떠러질때 그것은死滅한다고 생각한다。

◇

參考로 詩에서 意味가取扱된 方式의 變遷을 도라보자。象徵主義以前의詩는 意味에 若干의 無理를 옷이며노코로써 지여젓다。

(象)徵主義의 詩는 나타난 意味以上의 神秘와含蓄을 갓출것처름꾸미므로써 意味의 効果를 거두려하엿다。그것은 心理學의 假裝舞蹈會엿다。

詩의 內容에 深奧하고 漠然한 灰色의 世界를 幻想시키려고한것은『베를레ー느』『메ー테를링크』等의 솜씨나 事實『메ー테를링크』의 灰色의 溫室은 灰色의溫室처럼 겉비전以上의 아모것도아니엿다。

이러한 習慣은 詩를 드디어 貴族의 술속으로 끌고드러갓다

그러나

(寓)象派는 칙신 詩를明朗한것을 만드렷다。

그들은 詩에게 어떠한 明確한 映像以外에 아모러한 秘密도要求하지 아니햇다

超現實主義의 內容의 世界란 無意識의世界니까 至極히 透明하지못하다。그것을 가르켜서 秘密을 假裝하는 一種의痲藥이라고 非難하지만 그들自身으로하여곰 說明시키라면 그것은 이우에업시 透明하다고할것이다。그들은 詩에서 意味가든것을 問題삼고 잇지안햇다。거기에 잇수업는 祕密이 잇다고생각하는것은 남은 詩學의

(影)響아레서 길러난 鑑賞者의期待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宿命的으로 意味를 집어진말을 그것을 無視하고 驅使한 結果는 意味의 洗滌이아니고 意味의 泥亂이엇을 어찌할수가업섯다。이러케 보아왓슬때에 象徵主義의意味는 虛張聲勢엿다는것을 쉽사리發見할수가 잇다。

『쟝·포ー란』이 말한것처름 말의意味란 언제든지 相對的인것이여서 거기는들 엿개의意味가 可能한것이다 여기에 象徵派의 便宜가 잇섯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詩人이 말의 이러한 弱點을 利用하는것은 卑怯한일이다

그는 위선 意味를 말의 다른 要素 卽 소리와 모양과 함께 要素의 하나로 排擯하야 가장 正確한 計算에 依하야 運用하므로써 明確、分明한것으로써提示하여야할것이다。(續)

秋燈讀書

『精讀』과『夜讀』

朴致祐

雜讀과 亂讀을 避하고될수잇는대로 主題中心的인 精讀主義로 나가도록 힘쓰고잇습니다。專攻하는學問——哲學——의性質上 自然 그러케됩니다。哲學에關한限、分에넘치는成果를 탐내는남어지 아모러한 主題도『푸란』도업시 거저 漠然하게 손에닥치는대로 넘어가는 讀書法은 禁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적은 業績이라도 남겨보려면 보잘것업는研究라도 이번에는 이러이러한問題로생각해보자하고 미리作定해노코——다시말하면 적드크든『主題』라고할만한 課題를 그때그때반드시미리 잡아노코 이 主題를 中心삼아 一切의 讀書와 그리로 集中식혀야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미리 主題를 잡아노코 거기에 必要한 論著를 모하노흔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똑똑하게 하나식 하나식 읽어내려가는 方法 卽、主題中心의 精讀主義가(哲學에關한限) 가장 効果的인 方法으로 알고 大略이런걸을取하고잇습니다。 이러케말하면 무엇 크게 工夫나 하는듯이 들리리다마는——。

다음 나는 대개『夜讀』입니다。遺傳인지 習慣인지는 나 自身도 똑똑히는 알수업으나 어쨋든 낫(晝)에는 손에 닷지안흡니다。 더욱히 아츰에는 新聞以外에는 눈에도 머리에 드러가지를안습니다。가장能率이만히나기는 밤에도 열두時、새로 한時 두時입니다。

近者 넘은 論著中에서『감엇구나』하고 생각되는 冊으로는——

『하이데카의存在學』、鬼頭。

『神話와世界』、뿌르트(甘譯)

『로마書』、빨르트(甘譯)

『쉐스토프選集』、改造社版。

『Ethik des Berufes』、H. Freyer其他。

『Philosophie der Arbeit』、F. Giese. 以上

理性의敗北

(一)

裵漢仁

知識階級問題가 한개의課題로서 그所與된 社會的地位와 그所屬한 文化價値와 關聯하야한 歷史的時期에잇서서 이階級이가진바 그社會的職能의說明과 그階級的意義의

(批判)必要를說하게되것은 吾人이史上에서屢屢히 보든 現象이다。

今日에잇서서도 다시금 知識階級問題가 論議되고 따라서 새로운角度로써試論하려고 하는것은 그直接한機緣과 그現實的相關性은 그만두고라도 적어도現代文化에 關與하는 知識階級으로하여곰 一時 그무거운 발을 멈추고 눈을도리켜 自己省察의機會를주게된것만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우리의論壇에서도 知識階級과 文學과 關聯하야 二三의試論이 잇섯고 二三의紹介가잇섯스니이것을 한갓理論的輸入品으로서만 看做할수업는 根據가 吾人의周圍에도잇슴을 證左한것은 現下實際에안저서 知識階級指導原理의無力으로써基因한 文學的精神의脆弱과 窮乏은 더욱 우리의

(文壇)에서 精甚하야 그곳으로부터派生하는 文學的自慰와 末稍化는 우리의現下文學으로 하여곰 다못 淋巴腺的存在로써 맛치게하는可能性이 업지안호니 이에 數多한評論家가 두손을 들어 警鐘을 아모리亂打할들 元來가 知識階級은 統一된 指導原理가잇슬수업는지라 다만 三分의激勵와 七分의 잔소리로써 박게되지안코 文學者自身에게 잇서서도 아모런 反應도 업는것을 밀우어볼지라도 알수잇나 니이얼마나 秀人은 不安과 焦燥中에서 强烈한刺戟과 新鮮한滋養이 必要한가。 이와가튼 意味에서 아모리 外國서만 떠든것이라고해도 다만

(敬遠)할것만이아니라 時間과餘力만잇스면 우리한번 反省해보는것이 無妨하리라고 생각한다。

일즉이 知識階級의 存在의合法性은 오즉『다음階級』을 爲하야서만 可能하다하엿다 또한 그眞正한 歷史的 使命은 다음階級의 萌芽를 育成하는 知識이라하야 이 世代에잇서서 知識階級이란 한개의 素材와 같다 前轉의길이엇다。그들은 얼마나 自己自體가 知識階級인것을 慚愧하엿든가。그리하야 그들의特性인 인테리젠스(知性)는『다음階級』을爲한 한개의 手段이엿스니『이階級을 爲한모든것은 善이고 不然이면 惡이다』하는말이 그대로 信奉되엿다。모든價値의 基準은 오즉 이『다음階級』의

(獨壇)한바되엿스니이것은卽모든認識의尺度를 인테리젠스(知性)或은 理性으로써 標準하는知識階級 自體의否定과解體를 意味한것이엿다

社會生活에잇서서 인테리젠스(知性)、或은 理性의 價値化와 認識의方便化는 이를 可能케한 그社會體에 依據한것으로서 오늘날에『인테리젠스』(知性)의價値와 認識價値를 다오는階級의觀點에 두게되것은 이知識階級自體의 解體에 作한 知性의必然이아니라 階級的 必要에서 생긴것이다。그必要의 心理的表現은『意志』와『意欲』Wollen 이다。이 意志의具體的·表現은 한개의 獨裁的形態이다。

格勤精勵로 成功한新聞人

【리스본發聯合郵信】『포듀갈에서 쉬지안코 活動하는 사람』으로써 有名한『포듀칼』의 最有力新聞『오·코멜시오·드·폴르트』紙의 所有者『벤르·갈게자』氏는 最近七十五歲로서 逝去햇다『칼게자』氏는 稀有의奮鬪努力人으로써 그는 八歲때 부터 活動하기시작하야 死에 至하지까지 쉬지안혓다。그는 富裕의家에 태여낫슴에도 不拘하고 學校敎育을 밧는것을 欲求하지안코 叔父의 新聞發行을 助力해가며 工夫햇다。後에『오포르트』大學에通學할때에도 朝夕으로 쉬지안코 新聞發行에 힘서가며、未曾有의 好成績으로 卒業後數年이 못되여『오포르트』大學의 敎授에 任命되엿다。그러나 그는 新聞事業에서 어든바 만흔興味를 니즐수가업서서 마침내 大學敎授의 職을 辭하고 當時地方小新聞에不過한 叔父의『오-코멜시오·또·폴르트』의 經營及 編輯에 心身을 傾倒하야 이것을『포듀갈』第一의 有力紙로 만드럿다。그는『리스본』學士院會員에 推薦되엿스나 會員으로서 精勵하고 會合에는반드시出席하며 缺席하는일은 업섯다。또 그는 各地에 旅行할 必要가잇슬때는 往復 汽車時間을 利用해서 論說의 執筆과 新聞經營의 計劃을 세우는등 暫時도 時間을 虛送치안헛다。그의 唯一한 處世의 모트ㅡ이든『時間의節約은 돈의 節約보다낫다。』라는말은 매우有名한 것이엿다。

新刊紹介

▲有畜農業 十月號 名古屋市南區瑞穗町 有畜農業社發行 振替名古屋六六一一番 定價十錢

▲國華 九月號 京城府初音町二○○ 育英時報社發行 振替京城一二四五○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マツダニユース 九月號 東京市赤坂區新町二丁目一九 マツダニユース社發行 定價二十錢

黑風

韓龍雲 作

金熊超 畫

【143】

解后(邂逅) 7

『더 용한것이 누구야요』

하고 두녀자는 소리를 가려하야 무러다

『그것은 쉬웁게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하고 왕한은 대답하기를 자세엇다

『누구야요 말슴하서요』

하는 창순과봉숙은 서로 압흘 나서서 무러다

『누구에게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판단하는 내가 더 용하지 아니한가요』

하는 왕한은 말이 마치지못하자 우숨으로 계속하야다 세사람의 우숨소리는 공원의공기를 움직엿다

창순과 봉숙은 소리를 가려하야 가만히 창가를 하면서 어깨를 견주고 거러간다

『에구 깜싹이야』

하는 창순은 발을 멈추고 뒤로 물러선다

『웨 그러니』

하는 봉숙은 더욱 놀내엇다

『하마터면 개미를 밟을뻔 하얏고나』

『나는 또 무에라고 깜짝 놀낫다 개미가 그러케 무서우냐』

『누가 무서워서 그러나 밟으면 애처러우니까 그러지』

두녀자는 창가를 계속하더니

『우리 창가를 고만두자 서선생님이 게신대 우리 까지만 창가를 하야서 되것니』

하고 봉숙은 말하얏다

『야 참 그러쿠나 고만두자』

하고 창순은 왕한을 도라본다 봉숙이도 왕한을 도라보앗다

『선생님 실례하얏습니다 용서하서요』

하고 창순은 다시 말하얏다

『웬 말슴이야요』

하는 왕한은 그들의말을 못드른듯이 반문하얏다

『선생님을 모시고가면서 우리까지만 창가를 하얏스니 실례가 아니야요』

『창가라는것은 듯는사람이 잇서야 자미가 잇는것입니다 조금 더 하십시오 창가소리가 아조 자미잇는데요』

하는 왕한은 말보다 말한뒤의 표정이 더욱 긴장한듯하얏다

『그럼 조금 더할까』

하고 창순은 봉숙의귀에 말하얏다

『네나 하렴 나야 서선생님을 위하야서 창가할 터이업다』

하는 봉숙은 새침스런듯 하다 다시 우섯다

『고만좀 놀녀먹어요 어른 무슨 더이야』

하는 창순은 흘기는듯한 눈으로 애교를 보내엿다

그날은 그들에게 잇서서 가장 깁분날중의 하루로 보내엇다

왕한은 몃칠동안에 한량에잇는 혁명당 지부의 동지들과 추측하면서 그곳의 여러가지 사정도 자세히 듯고 미국에 잇는 지부의 사정도 보고하얏다 그리하다가 본부의 독촉전보를 밧고서 왕한은 팡룡으로 가게되얏다

봉숙은 왕한과 창순을 작별하기 위하야 자기집에서 만찬회를 열게되얏다 봉숙은 간단한 요리를 정결하게 작만하야서 세사람은 식탁을 가치하얏다

『창순씨는 가까운 동무이니까 관계가 업지마는 선생님이 제의집에 오시게 되것은 영광입니다 모든 실례를 용서하야 주서요』

하는 봉숙의 인사가 긋나자

『영혼 끄분에 두터운 대접을 밧는것은 감사하니보다 부끄럽습니다 만히 먹는것을 용서하야주십시오』

하는 왕한의 답사가 엇섯다

『정으로 주는 음식은 음식을 먹는것이 아니라 정을먹는것입니다 요리가 엷을수록 정은 두터운것입니다 부자의맛진미에는 돈이드러지마는 가난한사람의 나물반찬에는 정이 드럿습니다 허물며 봉숙씨의 수품(手品)이 나물로꼬기를 만들고 소금으로 설탕을 치는바에야 더할말이 잇습니까 봉숙씨의 음식에는 약모리 소래가튼 알이라도 입설을 깨무는줄을 깨닷지못할것입니다』

하는 창순의말은 주인의 원사인듯도 하고 손님의 답사인듯도 하얏다

『창순씨의 말에는 꽃이 업서도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야 변호하는것은 감사하지마는 서선생님을 위하야 진정을 말하지 안는것은 미안합니다』

하는 봉숙은 말보다도 표정이 간절한듯하얏다

『만흔 음식을 실흔도록 먹어서 배를 불니는것보다 적은 음식을 달게먹어서 정을 [illegible]는것이 조흔것인데 오날의음식은 배와 정을 아울러 [illegible]니게 되얏습니다』

하는 왕한은 간단[illegible]

[illegible]

超記錄的大豊으로 比前年二割增收豫想
總收穫豫想高가近七十萬石
咸南道今年米作狀況

【咸興】함남도 농무과에서 발표한 제일회 미작(米作)수확예상고는 륙십구만구천삼백삼십일석으로 작년도 제일회발표한오십칠만 팔천삼백삼십석에 비하면 이할삼푼의 증수며 작년도실수고인 오십칠만일천삼백이십칠석에비하여 십이만팔천사석의 증수를 예상하는데 이런수확고는 함남도에서 처음보는 초긔록적인 풍작이라고 동과에서는 예상이외의 대풍에 놀나마지안는데 반당(反當)수확고로 보드래도 금년은 일석일두이승(一石一斗二升)으로 작년의 구두삼승구합에비하면 일할오푼의 증수를 빗우는데 날로 올나가는 미가고(米價高)에 이와가튼 미증유의 대풍작(豐作)으로 농민들은 깃뻐함을마지 안는다한다

臨終時遺言으로 三百圓을喜捨 貧兒敎養費로

【元山】원산부 오정목에 잇는 환대(丸大)고무원산출장소 주임 최백룡(崔百龍)씨는 지난 이십팔일 돌연히 뇌일혈(腦溢血)로 세상을 떠낫다고한다 그런데 그는 림종시에 유족에게 자긔가 죽은후 장례를 성대히 하지말고 그장례비를 원산에잇는 가장 구차한 교육긔관에 긔부해달라는 한마듸의 유언을 남기고 황천으로 갓다고한다 그는 평소부터 교육계를위한 원대한 포부를 갓고 잇섯스나 앗갑게도 그장지를 달키전에 간것이라는바 그유족은 지난 삼십일에 원산고아원(元山孤兒院)에 이백원 원산빈아교양원(元山貧兒敎養院)에 오십원 원산춘성유원(春城幼稚園)에 오십원 합계 삼백원을 최씨의 유원에 종하야 각각 긔증하게되엿다는바 일반은 씨의 장지(壯志)를 칭송하야 마지안는다고 한다

大邱署非常線에 四十餘青年被檢
其中에는女子도八名

【大邱】대구경찰서에서는 시정긔념일을 압두고 이삼일 전부터 부내요시찰인을 모조리검거하고 잇슴으로 일반은 퍽도긴장하고잇는바 삼십일밤은 돌연히 비상소집을하야 부내요시찰인 또는 평소행동이 수상한청년은 모조리 검거하는 중이라는데 밤열시까지 검거된 청년이 약사십명에 달한다는대 그중에 녀자 팔명도 잇다고한다

元山貧兒敎養院에서 作業工場을設置
有志의援助遝至

【元山】원산기독교 청년회경영의 원산빈아교양원(貧兒敎養院)은 개원이래 원산각계 인사들의 렬렬한 후원하에 욱일승천의세로 발전하고잇서 현재 약칠십명의 걸인、고아들을 교육하고잇는데 본래 경제적지반이 서지못한 동원의 장래는 자못 우려되엿스나 저반 리상호(李相浩)씨의 적극적 노력은 동원찬조원상십여명을 엇게하엿든바 이찬조원의 매년부담액으로 매년 경비의 대부분을 엇게되여 동원에는 서광이 빗치고 잇섯다 함은 긔보하얏거니와 그후 동원을위하야 고귀한 물질을 희사하는독지자가 속출한다고한다 그것은 걸인(乞人)아이는 본래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시간과공간에대한 관념이 업슬뿐아니라 생에대한 집요하고 긴장한 욕심이업고 방만적이어서 위선그들의 완전한 교육은 생산장에서 직업을 가르치고 그수입으로 생계를 세우게 하지안으면 안되겟다는 견지에서 동원에서는 작업장설치의 급무를 깨닷고 이작업공장에대한 공사비의 어듸길을 백방으로 찻든중 원산의 근등번치(近藤繁治)씨가 건축비 약륙백원을 희사하겟다는 호의를엇고 동원에서는 원산부 중청리십팔번지(一淸里一八)부청소유지 약 이백팔십여평을 무상대부를 밧어 근일중 정초식을 거행하리라는데 이작업공장이 준공되면 제승 제연(製莚)을 걸인 아동들에게 식히기로 되리라는바 이로서 동원의 장래는 자못빗나게되엿다고한다 더욱이 상호(三浩)원산서장은 부임이래 이빈아원의소식을듯고、몸소동원을 시찰하는 동시에 금한건축비부담의 근등

十五歲少女가 自進約婚解消

【江西】지난이십칠일에 강서경찰서문압헤 어떤수상한처녀가나타난바 거동이 수상함으로 서원이 불러드려 조사한즉 그는 강서군동진면 룡정리탄항(江西郡東津面龍井里炭坑)에잇는 송태일의장녀 송금월(宋泰一長女宋金月)(一五)로서 그소녀는 부모네가 정한남편과는 살수가 업스니그것을 해약하게하여 달라는것이엿다 강서서에서는 어린소녀의 말이 너무나 새삼스럽게보임으로 그소녀의 실부인송태일을 소환하야 사유를들어본즉송씨(宋氏)는 너무나 생활곤난으로 참다못하야 팔년전 그딸이 칠세때에 한동리에사는 양용삼의장남 양주길(梁用三의長男梁柱吉)(一七)과 선폐금일백원을밧고 약혼하엿든것인데그소녀는 한동리에서 자긔남편될 양주길의 행동을보매 장래가리 명료히 지낼것까지 안이하야 수차 그부모에게 파혼을 강청하엿스나 듯지안이함으로 부득이 경찰에까지 와서 호소한것인데 선폐금백원만은 도로양씨집에 돌려주기로하고 파혼하기로 하엿다한다

遺產返還訴訟中 興味잇는새事實

【利里】자긔아버지 유산상속문제로 그의숙부를 상대로 소송중에잇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 동사건에잇서서 흥미백%의 사실 하나가 또잇다—본사건의 주인공되는 김용근(金容瑾)(三一)이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인 소화오년에 그의 숙부인 전주읍에거주하는 김응두(金應斗)(六○)에게 자긔 인장(印章)을 위조하야 사긔를 하엿다는 고소를 당하야 전주검사국 미결에서 사개월동안 고생을하든중 당시 전긔 김용근이가 인장 위조가참이냐?거짓이냐?하는 유일한 증인으로는박광래(朴光來)(三○)란사람이 불이게되엿섯는데 전긔박광래는 사실대로 김용근이가 인장위조한 사실이업다고 증거하야 김용근은 무사히 방면되엿섯는데 그후 김응두가 박광래를 매수하야 여러차번 김용근의 증인으로립증할때에 용근이가 인장위조한 일이 업다는것은 거짓이고 김용근이가 인장위조한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사건을 전부 하엿다는 구실로 거절함으로 박광래는 (약간긔백원은바덧다고함)바는 반감을 가지고 긔회만잇스면 자긔의모든 사실을 경찰서에 자수하랴고 긔회만을 엿보고잇든바 마침 김용근이가 리리경찰서에다 자긔 숙부인김응두가 자긔아버지 유산을 마타가지고 내여주지 안함으로 지방법원으로 부터 고등법원까지 「그재산을 김용근에게내여주라」는 판결을 밧고도 내여주지안하니차저달라는 고소를 제긔하고 하회를 긔대린다는 소문을 듯고 박광래는 전주로부터 리리에와서 리리경찰서 모형사의게 전긔사실전부를 고백하엿슴으로 리리경찰서에서는 즉시박광래를 류치하고 (김용근측에서도 박광래를 상대로 고소도하엿다고함)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일방으로 전주로부터 김응두를호출하야 사건의 진상과지초시종을 엄중히 조사하는중이라는바 사건이 매우 흥미잇는 사건인만큼 일반은 동사건의전개여하를 자못주목하고 잇다고한다

不義兒絞殺코 警察署身勢

【密山】경남밀양군청원면류원리(淸源面柳原里)정경팔(鄭敬八)의처 리임순(李壬順)(三二)은 지난 이십일오전구시경 아들을 분만하야가지고 즉시자긔치마끈으로 그아이의 목을 잘라 죽여서 그부근개천에 던진것을 동리경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리임순은 본래동리에 사는남봉출(南奉出)의 외처로 지금부터 구년전에 남봉출이가 일본내지로 돈 벌이하러간후로 소식이 업고 사생을알수업서서 경남 의령군정곡면성황리(宜寧郡正谷面城隍里)에 사는 실부인 리춘길(李春吉)에게가서 긔류하고 잇다가 소화구년 음십일월이일오후 구시경 집부근에서 아지못할 남자에게 욕을당하야 마침내 임신하얏슴으로 이것을 남모르게할양으로 전긔정경팔과 결혼하얏다 그런데 결혼한후 얼마되지 안하서 그와가티 아이를 분만하게되엿슴으로 남편과 일반동민에게 대할면목이업서서 그와가티 교살한것이라한다

慶北道에 松毛蟲
被害面積이二萬五千餘町步 損害額도一萬餘圓

【大邱】경북도내에서는 한재중재로 말미암아 일반농민으로써 비절참절한 남경에 처하여잇는 중 설상가상으로 송모충(松毛蟲)이 발생하야 도내 전반적으로 발금 확대되는중이라는대 발생면적이 이만오천정보에나 달한다하며 손해액이 약일만이천여원 이라한다 도산림과에서는 필사적으로 절멸책에 노력중인바 구제된 면적이 사천칠백정보라하며 구제경비도약 칠백원이나 된다고한다

廢川敷地에依接한 廿戶에突然撤去令
닥처오는겨울에엇지할수업서 咸南道에保留를陳情

【咸興】함주군 주서면 서상리(咸州郡州西面西上里)여의천(如意川)폐천부지에 가옥을 건축하고잇는 함흥에서도 가장 세궁민인 공달신(孔達信)등 이십명은 수일전 함흥토목관구(土木管區)소로부터 가옥을 전부 철거하라는 엄명을 바덧다는데 원체 궁민으로서 불모의땅(不毛地)인 폐천부지에 환태(丸太)등으로 겨우 집이라고 건축하여 우로를 면하고 잇는터에 이집조차 헐게되면 다수한가족이 닥처오는 추운겨울에 로두(路頭)에서 방황하게될수박게업슴으로 삼십일 대표공달신(孔達信)등이명이 상도하여 함남도 토목과에 철거를 보류하도록 탄원 하엿는데 이 이십호의 금후가 크게 문제된다

土木課貴島屬談

이에대하여 함남도토목과 귀도(貴島)속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폐천부지에 가옥을 건축하지 말라는것은 루루히 경고한것인데 이러케 아무허락이 업고서 함부로 건축하고서는 철거하라고하면 또이러케 탄원하는군요 최초에 적당한 수속 즉 대부(貸付)원을 제출하면 적당히 고려하여줄수도잇는데……하여튼 이후의 폐를 끼치게됨으로 단호한 처분을 앳끼지안흘터입니다 운운

南大築港促成과 支廳復活等陳情

【盈德】강긔경북지사일행(岡崎慶北知事)이 지난이십오일에 당지에 도착하자 문명긔(文明琦)권태호(權泰鎬)량도 회의원을 선두로 좌긔각항의 진정이 잇슨후 환영연이잇섯스며 동일오전구시부터 시내각소시찰과 영해(寧海)방면과 강구항(江口港)시찰을 맛친후 십륙일오후에 출발하엿다고한다

◇陳情要項
一、大津築港促成의件
一、丑山護岸工事促成의件
一、東海線及慶北線延長促成의件
一、法院支廳復設促成의件
一、林産地道路開通의件
一、等外道路昇格의件
一、商工銀行支店設置의件
一、其外數件

二十芳年의少婦 大膽!男便을絞殺
마취제를멕인후에목을매여 不合理한結婚이나은犯罪

【新義州】지난이십팔일신의주지방법원공판정에 나타난 사랑업는 결혼생활이 비저내인참극! 피고인 평북귀성군 귀성면리구동(龜城郡龜城面梨郞洞) 원보패(元甫貝)(二一)는 그가열네살때에 나희자긔보다 배나되는 그곳장성한(張星翰)의 처가되얏는데 령의심한 차이는 드듸어두사람의사랑을니르키지못하게하고결혼후 반년이못되여 원보패는그집근처에잇는 원성주(元成柱)(二?)와 란정년과 비밀한사정을 속사이게되얏다 소화칠년 오월십칠일 이두간부와 간부는맛춤금단의사랑을 속삭이고잇든현장을 남편장성한에게 발각되여 겨분이극도에 달한 장성한은 그자리에서 원성주를 칼로 찔러죽이고 말엇다 장성한은 드듸어 살인죄로 체포되여 징역 사년의판결을밧게되고 애인을일흔 원보패는 혼란된 가슴을 누르며 혼자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잇든중 작년십이월 이십삼일 생각만하여도 끔직한 남편 장성한이가 출옥으로 출감이되여 녯날안해 원보패를 차저와서 본래부터사랑이 업든남편 더욱이 자긔애인을 죽인 그남편을 다시사랑하고십흔 생각이 니러날수가업슴으로 아츰밥에 마취제를 석거 그남편을 먹게하자 남편이 이것을 먹고 의식이 몽롱하게되여 압흐로 너머지는것을보고 원보패는 등뒤에서 색기로 장성한의 목을 잘나매여 죽여버렷다 원보패는 살인죄로 그동안 귀성경찰의손에 체포되여 신의주지방법원으로 너머왓든바 지난 이십팔일 오후두시 국지(菊地)재판장압헤서 전긔사실을 공술하얏다 이날사실심리가 꼿나지못하고 삼십일에 속행키로되얏다

金海郡長面에 不正事件綻露

【金海】경남김해군장유면 서긔 김인두(長有面書記金麟斗)(假名)는 대정십삼년에 공제조합(共濟組合)자금을 횡령하엿든 것이 근일에 발각되어 십여일전에 전긔김인두를 김해경찰서에 류치취조중이든바 지난 이십륙일에 또다시 동면협의원 목갑재(睦甲載)(假名)까지 류치하엿스며 동이십칠일에는 김해경찰서 사법계 박경부가 직접동면에 출장하여 더욱조사를 세밀히하엿는바 문제는 매우중대화할듯하다한다

某種書籍이는다고 無期停學의處分
光州某實業學校處事

【光州】지난 구월이십팔일에광주 모실업학교(光州某實業學校)생 박모(朴某)는 자긔의 친척에게서 「트로츠키—」저 자긔폭로(自己暴露)라는 책을빌려다 학교에서 보다가 선생에게 발각되여 무긔정학(無期停學)처벌을 당하엿다는데 일반은 학교당국의 처치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비난한다고한다

松都高普校의 廿九週年記念

【開城】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는 동교창립이십구주년을 긔념하기위하야 다음과가튼 삼개집회를 개최하며 창립긔념당일에 동교에 십주년이상 근속한 윤진성(尹鎭聲)、김연우(金演祐)、김봉준(金鳳濬)세선생의 표창식을성대히 거행하리라한다

◇音樂會
時日 十月二日午後八時
場所 中央會館

◇運動會
時日 十月四日午後九時
場所 同校大運動場

◇展覽會
時日 十月三、四、五日
場所 同校大講堂

昌寧十八個校 聯合競技大會

【昌寧】창녕군 교육회주최하에 본군초등학교 제일회련합경기대회를 래십월오일 오전구시부터 창녕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군내십팔교 수천명아동들이 참집하야 룡세잇는 종목으로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리라한다

滿洲視察團 出發日字延期

【江西】본보강서지국 주최로 만주국시찰단을 모집한다함은 긔보한바 잇거니와 단원도 다수 참가하야 시월이일로 출발예정이엇든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발일자를 무긔연긔하엿다는데 호일에다시출발일를발표하리라고한다

聯合運動盛況

【醴泉】례천공립보통학교 례천공립농업보습학교(醴泉公立農業補習學校)의 련합으로 지난이십팔일오전구시반부터 추긔대운동회를 거행하엿는데 경긔종목은 련합체조로부터 긔마전(騎馬戰)까지 륙십여종으로 『대교리레』(對校리레)는 례천대창학원(大昌學院) 각단체리레는 례천청년들이 각각우승하엿다한다

各校秋期運動會

◇公州永明普校——十月十一日
◇公州公立普校——十月十三日
◇汝海津東興學校——十月五日
◇江華公立普校——十月五日
◇同吉祥公普校——十月四日
◇同河岾公普校——十月四日
◇同仙源公普校——十月五日
◇同下道公普校——十月五日
◇同下道公普校——十月三日
◇同兩寺公普校——十月十日
◇同內同公普校——十月三日
◇義城郡丹密公普校——十月四日
◇同丹北公普校——十月六日
◇同龜川公普校——十月九日

酒價引上決議 酒造業者總會서

【洪城】홍성세무서 관내인 홍성、서산、보령삼군주조업자 제일회정긔총회는 홍성세무서내에서 지난 이십구일 오후세시삼십분부터 회장 리병우(李丙雨)씨 사회하에 개회되여 본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결산과 사업보고가 잇섯스며 또한 규약변경과 주대인상을 결의하고 오후여섯시 십분에 폐회하엿다고 한다

地方人事

◇徐鳳俊氏(森信汽船熙務主任)今般仁川支店長代理榮轉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徐內薰氏(扶餘郡恩山面長)新任人事次本報扶餘支局來訪
◇李聖丙氏(溫陽醫院長)開業人事次本社牙山支局來訪

平壤

關西體育會體育大會

▲時日 十月五日午前九時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申請期日 十月三日正午까지
▲申請場所 巡營里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南門町 大平運動具店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大田

大田市民大運動會

▲時日 十月二十日(舊九月二十三日)
▲場所 第二公立普通學校
(詳細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大田支局

清州

懸賞童話童謠大會

▲時日 十月十日午後八時
▲場所 清州金融組合樓上
◇主催 朝鮮日報社淸州支局
◇後援 清州少年會

異次頓의死 【3】

李光洙 作
金奎澤 畵

비록 이차돈을 못낫당하게생각은 하엿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외딸의 정경이가련하엿다。그러나 집보다도 나라를 더사랑하는 이마로에게는 딸의정경보다도 거칠마로가튼 영웅이 태자가 되지못하고 이차돈이 태자가 되는것이못마당하얏다。

『아가 울지마라』

하고 부인은 딸의 손을 만지며、

『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어찌하느냐』

하고 달님을 위로하엿다。

달님은 참다못하야

『아버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두 손으로 낫을 싸고 후원에 잇는 제 방으로 가버렷다。

방에는 별님이 혼자서 거믄고를 뜻고 잇다가 이러나 달님을 마잣다。달님이 우는것을 보고、

『아가씨 웨 우세요? 이차돈서방님이 장원을 하신날에。저 달을 보세요。저 토함산우에솟은 맑은 달을。저 달님도 오늘은 이차돈서방님을위하야 더욱 깃버하시는것 가튼데。』

『나는 인제는 달도 실혀!』

하고 달님은 서안에 쓸어저운다。

『웨 일이서요? 대감마님언테 오늘 신궁 가섯다고 걱정을들으섯나요?』

하고 별님은 거믄고와 삼 삽던것을 밀어노코 달님의 겨테안는다。

달님은 한참이나 울다가、

『이차돈 서방님이 평양공주님의 부마가 되시고 태자가 되신다고』

하며 또 서안에 업드려서 울엇다。

별님도 놀래엇다。별님도 달님과 함께 일생에 이차돈을섬길 생각이엇던것이다。

『그러기로 이차돈서방님이 아가씨께 하신 언약이 계시거든』

하고 별님은 중얼거렷다。그러나 다음 순간에、

『그러치마는 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어찌하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엿다。그리고 별님도 솟는 눈물을 금할수가 업섯다。

달은 점점 올라오고 뜰에서는 벌레 소래가 요란하게 들렷다。별님은 고국인 우멧나라의 바닷달을 생각하고 더욱슯혓다。

『아가씨』

하고 별님은 달님의 등에 흣터진 검은 머리를 두 손으로 쓸어 바로잡아주며、

『내일 저녁 신궁제사에 만나시기로 하섯스니 그 때에 이차돈서방님께서 무슨 말슴이 게시겟지요。참으세요。』

하고 달님을 위로하엿다。

이 때에 금산(金山—서울뒤에 잇는、거룩한 산으로서 그 압헤 신궁 즉 검님 제사하는 집이잇다)및 이차돈의 조부의 집에서는 이차돈의 늙은 조부 아들존 한마로(阿珍湌演宗)가 오늘 장원한 손자 이차돈의 손을 잡고、

『오 긔특하다。내 손자당 네 아비가 살앗더면 얼마나 깃벗스리마는 네 아비는 스므살에 대잿싸움에 고구려 군사의 활살에 마자 죽엇고나。네 아비는 군중에서 가장 용긔잇는 장수로 여러번 큰 공을 세워더니랑 길동(吉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구려군사가 떨엇더니라。그러나 네가 아비만 못 안허。너는 아모리 하여서라도 고구려를 처서 나라의 원수와 아비의 원수를 갑고 부듸 이 나라를 크게하여라。』

『네。한아버님 가르치심을 뼈에 새겨서 잇지아니하겟슴니다』

하고 이차돈은 감격하야 대답하고、허리에 찬 금장식한 칼을 끌러 두 손으로 방들어 조부에게 들이며、

『한아버님。이것이 오늘 상으로 상감마마께오서 하사하옵신 보검이옵니다』

하엿다。

한마로는 곳 무릅을 꿀고 절한뒤에 이차돈이 주는 칼을바다서 먼저 칼집과 칼자루를 살펴보고 그리고는 바른팔로 칼 자루를 잡아서 칼을쪽 빼엇다。

푸른빗에 무지개가 번적하엿다。

한마로는 칼을 압헤 세워들고 이윽히 서리 가튼 칼날을 바라보더니 다시 칼을집에 끼자서 이차돈을 주며、

『오 국은이 망극하고나。내가 내일은 일즉 예궐하야 사은을 아뢰어야하겟다。』

하고 이윽히 말이 업다가 다시 입을 열어

『긋거라。너는 우리 조상님네 다섯가지 가르치심을 아느냐?』

하엿다。

肝油服用의 絕好期

眼鏡肝油는發賣以來五十年의歷史와全國壹百萬以上의愛用者가每日빼지안코服用하고잇는事實을보드라도如何히그品質이卓越한가를實證할수가잇는것이다。

只今은天高馬肥의가을이되야各家庭에學校에工塲에一齊히肝油服用을開始할好期가되얏슴니다오는겨우을準備하기爲하야虛弱者는勿論體力의增進에病後恢復에結核豫防에반드시眼鏡肝油를服用식히라……

經濟的榮養素

眼鏡肝油

家庭用
眼鏡肝油 一五〇瓦瓶入
眼鏡肝油 五〇〇瓦瓶入
眼鏡肝油球 一〇〇粒瓶入
〃 三〇〇粒瓶入
〃 五〇〇粒瓶入
學校工塲其他團體用
眼鏡肝油 五斤罐入
肝油球 一〇〇〇粒瓶入

服用할분
甘食을하야도여위는사람
感冒에걸이기쉬운사람
產前産後의攝生에
腺病質 肺結核 肋膜
腺病 곰새 夜盲症
榮養不良으로된眼疾

このマーク
メガネ肝油球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本舖 伊藤千太郎商會

"朝鮮財政及金融"

廿五年間變遷回顧 ②……林財務局長談

山梨總督時代에 잇서서는 統計의 狀況은 大體代償에 應하야前時期의 方針을 踏襲하야 諸計畫의遂行에 專念한外 初等敎育普及擴充 師範敎育의 改善을 企圖하고도 朝鮮簡易生命保險實施의計畫을 樹立하얏다

第二次 齋藤總督時代는 經濟界不況의 沈衰에 依하야 巨額의 減收를 招來하야 統計는 全혀 逆境에 잇서슴으로 不得已 各種事業의 繰延、中止等 歲出抑制에 努力한 結果 豫算編成은 昭和五、六年度 모다 各前年度에 比하야 減少하얏스나 其間 잘 財源을 按配하야 時勢의 進運에 伴하는 施設은 相當히 施行되엇스나 滿洲事變勃發 給與金의 增加、恩給負擔金의 分擔、減債基金의 繰入等歲入減少期에 잇서서 重大한 統計의 壓迫이될 事項도 實行하얏슴뿐더러 鹽輸入管理、煙草販賣의直營等 重要한 新規施設이 斷行되어 統計上 制度의 整備를 無關히 打開하얏스나 未曾有의 財政難時代이엇다하야도 過言이안일것이다 그리고 此時代의 事業으로 가장 特筆할 事項은 所謂 宇垣總督의 生活安全策으로 計畫된 窮民救濟事業의 創始일것이다 宇垣總督時代에 入하야서도 前年不況의 後를 이어 勢에 大正十三年以來 처음으로 行財政의 大整理를 斷行하야 總督府統計의 根基를 確固히하얏는데 上海事件及 滿洲事件의 突發에 이어 漸次 景氣의 好轉을 招來하야 租稅收入을 비롯하야 官業收入等 沈衰의 域에잇든 各種歲入은 一齊히 增加의 傾向을 示하고 一方 産金獎勵、棉花綿羊의 獎勵、時局匡救窮民救濟施設、農家更生計畫等 積極的 産業振興政策의 遂行에 依하야 四圍의 好環境에 處하고 半島의 財界는 躍進의 一途를 거드며 總督府財政은 今日과 如히 計數에 잇서서 뿐만아니라 收入歲入의 實質에 잇서서도 進展을 示하게되엇다

【稅制】 內國稅制度에 對한 變遷을 보면

併合當時의 稅制는 地稅及戶稅를 大宗으로 이곳에 酒稅、煙草稅、市場稅、家屋稅、漁業稅、鑛稅、人蔘稅等을 配當하고 賦課徵收方法은 매우 幼稚한 狀態에잇섯스나 倂合後에도 當初는 保護政治時代의 施設을 繼承하야 負擔의 增加는 될수잇는대로 이것을 避하고 그뒤 國民經濟力의 發達에 伴하야 財政自立의 計畫과 呼應하야 漸次稅制整備에 着手하엿다 卽 倂合直後로부터 數年間 約二千萬圓의 國帑를 投하야 土地調査事業을 遂行하고 大正七年에 地稅制度를 釐革한것을 비롯하야 大正五年에는 法人所得稅를 新設하고 酒稅賦課方法을 革正하며 大正八年에는 戶稅及家屋稅를 地方에 委讓하는同時에 砂糖消費稅를 新設하고 大正九年漁業稅、船稅、鹽稅等의 雜稅를 整理하엿스며 大正十年에는 取引所稅를 創設하엿다 그러나 稅制의 體系는 아즉 完備치 안코 課稅에만 關係될뿐아니라 租稅力이적어 財政上의 要求에 應키어려운點이 잇섯슴으로 大正十五年 總督府에 稅制調査委員會를 設置하야 慎重審議한 結果 將來의 租稅體系를 樹立하는同時에 第一次稅制整理案을 作成하고 이에基하야 昭和二年以降 漸次整理를 斷行하고 地稅의 組織은 維持키爲하야 營業稅及資本利子稅를 新設하고 所得稅、酒稅及砂糖消費稅의 改正을 行하엿스며 昭和四年에는 市街地稅令을 廢止하야 이것을 地稅令에 統一하고 昭和六年에 消費稅를 整備키爲하야 骨牌稅를 制定하는等 稅制整備를 中心으로한 租稅體系를 樹立한것이며 아직 租稅制度의 中樞로될 一般所得稅의 設置가 업서 負擔의 偏倚는 依然 適應를 缺하고 잇슴으로 昭和九年에 稅制調査委員會의 答申에 基하야 一般所得稅를 創設하는同時에 相續稅及淸凉飮料稅를 新設하고 一面土地의 收益稅로서의 地稅를 改正하며 負擔을 輕減하야 이것과 同時에 稅務行政의 圓滑을 期키爲하야 稅務官署를 特設하야 從來 道府郡島에 管掌하든 內國稅事務를 이곳에 移管하야 朝鮮의 租稅制度及 稅務體系의 兩目를 一新한것이다 要컨대、朝鮮의 內國稅制度는 此二十五個年間에 過渡的 稅制時代의 二期를 거치서 飛躍的 發達을하야 今日과가튼 狀態에 이르럿다

【發達】 을企圖한것이다 卽明治四十五年朝鮮關稅令、同定率令等을 制定하야 關稅賦課徵收、開港貨物의 取締等을 確立하고 同時에 輸出稅의 大部分을 廢止하야 그 財政의 餘裕가 생겨 大正八年에 出入稅를 全廢한外 移入稅에 對하야도 亦是漸次保護關稅의 色彩를 加하야 大正二年 加工貿易을 獎勵코자 原料에 對하야 免稅

【設定】 하고 다시 日本內地及朝鮮의 主義에 基하야 相互의 經濟交通을 顯著히 阻害하는 移入稅의 撤廢를 斷行하고 日本內地에는 大正九年八月부터 이것을 實行하고 朝鮮에 잇서서는 財政上 關係로 一時 그 實行을 延期하고 大正十二年에 酒精、酒精含有飮料、織物等을 除한外 一切의 貨物에 對한 移入稅를 撤廢하고 다시 昭和二年四月 綿織物의 民衆의 生活必需品인 點을 考慮하야 從來稅率의 三分一을 減하야 從價五分으로 하엿다 그러고 移入

【交通】 은 매우 鑛察케되고 그後鮮滿에 對한 北鮮鐵道의 增進과 國境貿易을 본데로 日滿間의 經濟交通의 密接한 改善을 圖하야 日滿通商協定이 締結되고 滿洲國의 成立과 朝鮮總督府、滿洲國財政部大臣間 에 協定에 基하야 日滿關稅協定細則이 되고 中國關稅의 三港과、鹽政、煙草、酒類의 共同稅率을 設立하게되엇스며 通關手續과 費用의 輕減及 經濟交通의 發展貿易振興에 寄與하는바가 잇섯다 (續)

朝鮮米의 生産費

紛糾去益擴大形勢

勞賃昂高와 其他關係로 調査會一層波瀾?

九年度産米의 生産費調査會는 結局 有耶無耶하게 流會될모양인데 이調査會에서 論議의中心이된 朝鮮米의生産費는 總督府調査의結果를 極秘에부치고 公表하지안으므로 確實한數字는알수업스나 大體二十七圓臺이것은 調査委員會의空氣로보아 察知되는바이나 不遠에納付할 十年度産米의生産費는 生産費의 四割을占하는 小作料及土地資本利子와 正租市勢가 前年에比하야 騰貴되엇고 또實物을供與하는食糧이 米價高에따라 前年보다高價이關係로 勞賃이大단히놉게되며 生産費全體에 비치는影響은 相當히커서結局 前年度生産費보다도 四、五錢가량은 놉게될것으로觀測되다 그러고 十年度産米生産費는 前年以上으로 大紛糾를이르키게될모양이라한다

米穀資金準備中

◇…米價高로 比前年二割增?

八千六百萬圓豫想

端境期가 接近하엿슴으로 各銀行에서도 米穀資金의 準備에着手하엿는데 米價가 놉흔關係로 二割가량 增加를 볼모양이라한다 昨年의 最高融資額은 七千六百萬圓인데 今年은 八千六百萬圓가량 必要할 모양으로 各銀行이 資金의準備工作에 奔走하다。殖産銀行이 三千萬圓內外 朝鮮銀行이 二千萬圓 商業銀行이 一千萬圓 漢城銀行이 八百萬圓 東一銀行이 五百萬圓 海東銀行이 百萬圓 其他 約一千萬圓見積라고 하니 朝鮮金融界로서는 十月中旬頃부터 이八千萬圓의 資金을 原動力으로하야米穀金融의 길이 열리게되다 金利는 一錢四厘로부터 一錢八厘內外일으로 同一하지는 안흐나 大體로 政府의低利資金을 除外하고는 南朝鮮이 낫고 西朝鮮及北朝鮮은 놉흔모양이라한다。

朝鮮簡保新契約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八月中新規約數는 日本內地人 三千五百八十七件 朝鮮人一萬四千五十七件 合計一萬七千六百四十四件 그保險料一萬八千三百三十二圓八十錢 그保險金額三百五十一萬二千七百八十二圓八十錢인데 八月末現在의 契約總數는 日本內地人二十萬三千二百三十八件 朝鮮人三十九萬六千百九十五件 合計五十九萬九千三百三十三件 其保險料五十九萬七千三百三十六圓八十錢 그保險金額一億一千二十二萬四千四百十三圓八十錢에達하엿다

米日爲替少弱

【京城三十日發聯合】卅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 廿八弗八十二仙으로四仙低 買 廿八弗八十仙으로三仙低

▲東京爲替(一日)

對米 賣二十八弗四分三 買二十八弗八分七

對英 賣一志二片十六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一日)

對米 賣二十八弗四分三 買二十八弗八分七

對英 賣一志二片十六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三

滿洲國幣安定으로

朝銀券大打擊?

躍進하던것은녯일

大連電報에 依하면 滿洲에서는 金票 對 國幣比價를 百圓「파ー」로 決定하고 將來도 變更치 안흘 方針이라고 傳한다。國幣「파ー」는今夏來의 國幣市勢漸落에依하야 事實上 實現에 가까운터이나 이것은 日滿經濟「블럭」에 잇어서 幣制가 嚴密한 再檢討를要請되는 그基本을 占한것인만큼 事實이라하면 日滿經濟에의 큰 寄與에 不外하다。從하야 朝鮮에의 波及도 事業投資、取引諸般을 通하야 貨幣價値의安定에伴한 큰 全般的好影響을 享受할것인데 이에 看過치못할것은 朝鮮銀行에의 深刻的影響이라한다 實際問題로서 朝鮮銀行券 卽 金票의事業은 以來의 躍進的對滿進出은 原因의一疏이國幣의不安定에 잇섯슴은 否認치못할事實이오 이動向은 金票資本會社의 國幣와의 比較感은 各要地의 手形交換에 徵하드래도 明白하다。從하야 原因인 國幣의「파ー」實現과 그安定은 端的으로 朝鮮銀行券의 流通의 大減退는 必至라고 보암만아니라 行務上에도 크게 波及될것이라한다 그리고 將來에는 朝鮮銀行의 特權附地 法貨權도 有名無實化될 可能性이 考慮되는터로 事態後 大膨脹의 朝鮮銀行의 對滿行務는 深刻한 打擊을 免치못하리라고 觀測되다한다

工業資源展

十六日로부터開催

朝鮮工業協會主催 朝鮮工業資源展覽會는 來十六日부터 二週間 商工獎勵館에서 開催하고저 着着準備中인데 그內容은 全部의『케ー스』二十六에 對하야 官廳方面에서 出品하는 朝鮮의 農産、水産、林産、鑛産、電力等의 各資源으로부터 製品에至한 製品行程을 揭示한 外에 關係工業會社의 出品인 朝鮮內大工業에 重心을 置한 卅有餘의 特別陳列을하고 그것에 配하기를 生産智識普及을 目的으로한 生産統計其他의 圖表를 揭示키로되엇는데 從來의 工業展과는 자못趣旨를相異하야 專허生産資源 及 生産知識의 普及에 資코저하는것이라한다。

天候順調로

開城蔘大豐

白蔘製造增加豫想

【開城】 今年은 昨年보다 天候의 順調로 因하야 入蔘이 採掘期까지 청죽으로 이파지지 안흘것으로 삼의生育이 頗良하야 今年의白蔘製造高는 約十六萬斤假量으로 豫想되다고한다

經濟界消息

○酒稅千五百萬圓突破祝賀會=全朝鮮酒稅 年額 一千五百萬圓 突破祝賀會는 朝鮮酒造協會主催로 來六日 午前十一時 京城府長谷川町 社會舘에서 開催할터인데 當日은 斯業界에로 朝鮮酒造業發展功勞者表彰式도 擧行하고 感謝狀及 記念品을 贈呈한後 午後一時부터 淸雲洞 白雲莊에서 祝賀宴을 열리라한다

商況(一日)

株式 新高價로 爆發

朝取證券部休會

朝取證券市場은 始政記念日로 前後場이 모다 休會이엇는데 大阪

對外貿易累計

出超로轉換?

【東京電話電通】 前前旬 三千餘萬圓의 大出超를 示하야 好調를 謳歌하든 貿易은 今旬에 一擧 出超四千五百七十二萬圓이라는 日本對外貿易史上 未曾有의 新記錄을 나타내엇다 勿論 이것은 輸入激減으로 因한 一時的現象이나 今年一月一日以後累計의 入超額은 前年同期 一億二千八百三十四萬五千圓에 對比하야 겨우四千八百六十四萬一千圓이라는 少額으로 縮少될 이情勢로 나아가면 十月이 되면서 累計가 入超에서 出超이라는 貿易史上 劃期的時代를 現出할은 明白하다 다만 現在出超의 主因이 棉花의 例年稀有新記錄的 輸入減에 基한것이며 이로因하야 十一月下旬으로 부터 十二月에 드러가면 棉花의 輸入增加와 同時에 다른輸入도大勢上 增勢로 도라가 다시入超를 示할것으로 豫期되다 그러나 一時的이라고 하드래도 이런累計에잇서 縮少를 나라내이게되면 日本貿易界가 明朗化케될것만은 틀님업고 그前途는注目된다

滿洲銀行新紙幣

十一月一日發行

【奉天】 滿洲國 中央銀行에서는 十一月一日부터 새로히 五角(五十錢)新紙幣를 發行키로 되엇든데 그紙幣의 形式은 上部에雲龍 中央에는 蘭花御紋章을 配하고 左右上隅의 彩紋中에 五角 이라 쓰고 左右의 下隅에는 西洋數字로 五〇FEN 이라고 白書하엿다는데 地色은表裡가 모두 茶褐色이며 右方中央에 財神의 像을 그리고 同左에는 同像의 透明을 配한 圖案이라는데 大는 經六四耗 橫一一八이며 同紙幣가 發行될을따라 舊紙幣는 漸次 回收케될것으로 當分間 併用케되리라고한다

暫定爲替安定案

(上) 佛國이 聯盟에 提出

佛蘭西代表로 쥬네브의 國際聯盟財政經濟委員會에 出席中인 商相죠르주보네氏는 十七日同委員會에 突如 暫定的通貨安定을 提出하야 놀래게하얏다 그後 氏는 다시 巴里미디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目下英米佛間에 爲替安定問題에 對하야 豫備交涉을 行하고잇合도 말하얏다 米國財務長官 모ー겐도氏가 目下渡歐의 途에잇는때임으로 그推移는 興味를 가지고보고잇다

×

본네氏의 提案은 通貨安定에 關하야 暫定的方法을 講究하려는것으로 提案의 要旨는 如左하다 國際貿易이 나날히 通貨變動에 依하야 不當한 影響을 受하고잇는 事實에 鑑하야 世界主要通商國이 試驗的으로 通貨의 暫定的策을 講究하야써 國際貿易에 復興의 機會를 與하기를 提案한다若各國이 協定期間 그通貨를 一定한 레잇트에 安定함에 同意하면 佛蘭西는 彼諸國과自由主義에 基하야 通商協定을 締結할 準備가잇다

본네氏는 右提案을 다시 敷衍하야 如左히 述하얏다

世界의 經濟狀態는 一九三二年以來 대단히 改善되어 産業活動指數는 七六에서 九六으로 生産指數는 八一에서九四로 上昇하엿다 同時에 滯荷及 失業者도 減少하얏다그러나 各國의 通貨動搖는 經濟回復을 阻害하고잇다 如斯한境遇에 最終的景氣回復을確保함에는 單只國際協定이잇슬뿐이다 佛蘭西政府는 他諸國이 通貨의 現行率을 變更치 안는다고 保證하면 關稅를引下할準備가잇다

본네氏의說明後 英國代表로부터右提案研究를 爲하야二十四時間의 猶豫要求가잇고 委員會는이를 許容하야 一旦散會하얏는바 通貨安定에對하야서는 經濟分科委員會도 勸告를 提出하야 쥬네브의 消息通은 通貨의事實上安定을 確保하는 暫定的協定이 近近 成立하게될지도모른다고 보고잇다

×

그러나 이는 結局、爲替市勢는 現在의率보다 그리 變動이업도록努力한다는 程度의 決議에 꼿칠것이며 米國이 加入치안은 聯盟委員會의 決議는 큰 權威가업다 따라 一般 興味는 오히려 英、米、佛間의 交涉에 잇다。佛蘭西로서는 最近의 金뿔럭의 動搖에 鑑하야 될수록 速히 協定을 締結할생각은 泰山가트나 實際問題에 부닥치면容易한 일이안일것이다 特히본네氏가 미리 新聞記者에게 言明한것과가티『佛蘭西는 如何한協定이나 法貨의 切下를包含하는것이어서는 안된다』도면을 主張한다고 한다 巴里財界의 觀測에 依하면 佛蘭西는 通商障害의 低減에 對하야서는 나아가英米와 交涉을行하려고하고 잇스나 佛蘭西自體의 通貨政策의 變更에는 應치안흘것이다。오히려 佛蘭西로서는 英米兩國이 磅及弗을舊패리리附近에 再評價할에同意하기를 바라고잇는듯하다』라고한다

即 佛蘭西는 現狀을 維持하면서 英米와 協定을 締結하려는것 인데 果然 英米에 그러한 準備가잇는지 업는지 또 磅及弗의 舊패리리라는것은 米英間의 舊平價인지 米英과 佛蘭西와의 間의 舊平價인지 이도 問題이다

×

要컨대 佛蘭西로서는 이대로推移하면 金本位放棄는不得已하게될運命에잇슴으로至急國際的通化의安定을要望하고잇다。

그러나 現在의 事態下에서 爲替를 安定하고 또 貿易上의 利益을 어드려하면 佛蘭西는 어떠케해서나 引下를 行치안흐면 안될것이다。

米國은 倫敦經濟會議의 際에는 通貨安定에 反對하얏스나 現在는 反對치안는다 그러나 米國은 大體 現在의레엇드를 維持하려고하는듯하다

英國의 意見은 戰後의 金本位復歸의 쓴 經驗과 過去四個年間의 爲替低落의 比較的幸福한 結果에 依하야 左右되고잇다 첌버렌藏相은 英國의最後的目的은 金本位의 復歸에 잇다고 屢屢言明하얏스나 一般經濟狀態安定이 豫想되기以前에 通貨의 安定을 行함은 有害하다고 附言하얏다。

各國이모다 如斯한 現狀임으로 爲替安定協定이 成立하기까지에는 아직 만흔時日을 要할것이다。(續)

今日財界 (一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五五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三一四九	[illegible]
㊂三等米新石	三一〇〇	[illegible]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三一二〇	不變
正租(仁川)改良	(一叺六圓五〇)	
一斤賣在來	(一叺三圓[illegible])	

◆市中金融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三圓五十八錢	十三圓五十三錢
銀	二十七錢〇厘	二十六錢五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	―
東新	―	―
日産	―	―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
大阪棉花	[illegible]	―
大阪人絹	[illegible]	―
大阪砂糖	―	―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短期 市況을 보고 今日은 記事를쓴다。

前場暴騰 戰爭切迫、大出超의 好感으로 上放된 市勢는 今朝에 入하야 一層 買氣暴發하야 大新百圓關門突破、鐘新百三十圓突破、東新 百六十四圓가오로 暴騰되고 日産도 八十四圓六十錢의 高價를보이는等 活況이엇다。

後場爆發 東京後場은 創立記念으로 休會인바 大阪은 大新百圓四十錢、鐘新 百二十九圓三十錢、日産、八十三圓九十錢、東新百六十三圓九十錢에 小高者後東新의 新高價를 비롯하야一齊爆發이엇다。

一段活躍展開

前月高價突破

伊『에』가 아즉도 開戰되엇다는 入報는업스나 『에』國이 總動員하면 伊太利는 進擊할것으로 國境의風雲은 날로 險惡해 강을따어 戰爭市勢가 再燃되고 더구나 下旬貿易의 四千五百餘萬圓의 大出超로 賣買氣勢이 크게 買方에게 기운을 주어 今前場은東京東新이 百六十四圓五十錢에까지 올라 十九日의 高價百六十四圓六十錢을 十錢넘기고 內迫하얏스며 大阪大新百圓再乘等 第二段의活躍이 展開된 形勢로보이엇다。

東新過去一瞥

九月十九日의 東京東新百六十四圓六十錢 大阪百六十四圓五十錢이 天井이나 或은 今日後場에라도 上廻하느냐 興味가잇는터인데 東新의過去를 一瞥하면 再禁止以來 買方目標이던 東新二百五十圓은 나오지안코 昭和八年一月 『오픈마겟오페레순』에 놀라기直前에 東京二百二十九圓 大阪二百二十九圓六十錢이 나온것이 最高價이엇다。昨年十一月 藤井健全財政藏相下에 東京百十九圓九十錢 大阪百二十圓三十錢이 最低價이엇든바 昨年下期以來 軟派는 全勝하야 新買出株는 決定的으로 實用되고 『인프레』入氣로 놉흐던것을 順次로 팔며 淸算株를 팔면 成功하얏다。『인프레』解消、貿易收支、健全財政等의 具現으로서 減配、金解禁時代에의 逆轉等이 軟派의 武器이엇다 그러던것이今年 六、七月에 入하야는 財況이 軟派마음대로 안되어 金融은 依然緩慢、株式高利廻 非擧態를 感케 되더다가 伊『에』問題의 紛糾로 歐洲戰爭까지 發展

期米 薄上鞘로 發會

前場昂進 今朝 阪地中限은 三十一圓二十九錢인 十丁低로 新甫十二限은 三十一圓丁인 二十九圓丁下鞘로發會되고 當地는 中限二十九圓〇九錢인 十五丁低로 新甫十二限은 二十九圓十錢인 反히 一丁上鞘로 場當始한後 阪地五節 十八錢으로〇六錢까지 小弛하엿다가 結局二十五錢에 止場하얏슴 伴하야三十五錢의 最高로 場을止하엿다

後場休會 仁川後場은 休會인데、大阪先限은 三十一圓三十九錢에 十四丁高로 始場後 二節四十錢이엇고 四節三十五錢으로 五節四十九錢에 올나고 四十六錢에 止場하다。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不申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四〇

買氣依然不離

又復反騰難免?

米의 洪水時代에 終幕을 告하게되는 十二限은 僅히 一丁의 薄上鞘로 發會되엇다 此限의 前途가 果然 如何히 展開되지 一考를 要하면 渡米蒐集에잇서서는 農家側서 아무리 賣惜한다할지라도 渡米難의反撥은 엇슬것이다 方今 發表中에잇는 第一回米作豫想을 發表한後 또 第二回豫想이 마치 如何할는지는 몰으나 第一回보다 減收일것을 누구나 豫期하는바 이며 딸아서 農家의 賣惜方針이 例年보다 又 一層 緊縮하야 明年度 端境期에 入하기까지 回復을 것은大凶作 後인 本年度의 持米側의 態度로보아서 짐히 알수잇다。 그럼으로 一般의 騷音은 買氣에 集中되어 押目의 市勢가잇는때에는 반드시 買進하는光景인데 此場에서 多少反落이 잇다할지라도 結局은 昂騰途程에 入하야 말것갓다 果如何?

市場小感

株 伊『에』國境風雲去益險惡으로 지금이라도 『랑』소리가 날것갓고 貿易大出超의 錦上添花格 好材料로 氣迷不振든 市勢가 俄然 買氣를 再發식히어 昨日 上放되든를 이어 今前場은當地는 休會이나마 東京、大阪市場이 暴騰活況▲東京東新은 十九日 高價를 十錢넘긴 百六十四圓五十錢으로 奔進▲買方이 다시 큰소리하게 되엇다 더구나 利喰千人力을가지고 腕力으로라도 치히어노흘판▲買方의 期待가리『랑』소리가 나고 歐洲天地가 뒤법석을 하면 氣高萬丈한 買方의 獨舞臺가 展開될것인데果然 그러케 理想대로되어갈는지?

米 日本內地 米作豫想에 對하야 一時는 五千九百八十餘萬石說이 잇서고 그後에는 五千五百萬石도 못될것이라는 說도 잇섯다。果然 今回 正式으로 發表되는數字가 何如?▲九月에入한以米의 天候不良으로 보아서 平年作이 되지못할것만은 事實이나 五千九百八十萬石說은 너머나 지나고五千五百萬石說은 너머나 不足▲要하면 五千七百五十萬石 程度로 보는것이 偉大한 錯誤가 업슬뜻▲그런데 北海道外 十五地方의 發表로보아서는 豫想보다 樂觀인결 남어지 數字가 何如할지는 몰으지마는……▲今朝新甫十二限은 阪地는 豫想그대로 約三十丁의下鞘로 發會되엇스나 當地는 돌이혀上鞘低薄▲上鞘이든下鞘이든 今回米作第一回收穫豫想發表에依하야大勢는確定될것이다▲假令 五千八百萬石程度로 發表된다할지라도 大勢가 容易히低落치못할것을 可期 ▲買便에는 馬越 石井兩派가 戰線을 延長하고 잇스며 賣便에는 山種 田中眞兩派가 對峙하고잇다。이고래싸홈에 새오등이 얼마나 터질는지 몰라

米豫想發表와

地方觀測區區

日本內地米作豫想의 第一次發表는 北海道外十五縣의分이 一千九百三十七萬五千九百四十石으로 昨年度 實收額에比하야 二百三十二萬九千百十六石의 增加를 示하고 最近 五個年平均 米作에比하면 一萬二千九百八十七石 增으로 例外의樂觀을 呈한다。그러나 남어지 未發表地方의分이 어떠한數字를 示하게되지 一般의觀測이 區區不一하다。 實로 本年度 米作에對하야 一時는 五千九百八十餘萬石의 豫想說도업지안헛스며 一說에는五千五百萬石程度를 쩗破하리라는 極度의悲觀說도 업지안헛섯다。 果然 農林省의 正式發表로의 數字가마치 何如할지 今明間에는 알게될것이며 딸아서 大勢도 이로써 判定될것임으로 時間的問題라 할수잇스나 此 兩兩의 觀測을 綜合하야 五千七百萬石以上 五千八百萬石以下의 中間數字를 見할것이라는 豫測이 當을得하지 안흘가한다。

各地正米

京城强堅 施政記念日로休業이나 定期의暴騰을보고 市況이强堅하야 丸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八十錢

仁川强調 産地로부터 逐日出廻增加中이나 淸算新甫의漸高步調로 一般히 氣勢人氣가 强하고 强調를示한 丸仁三等新米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九十五錢

大邱强含 今日은 記念日關係로 取引은 閑散하고 不變唱이나마 實需側의買氣潛在로 强含商狀인 角ㄱ三等卅一圓丁 四等卅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八十錢

▲釜山、木浦、鎭南浦、各正米는 施政二十五周年記念으로休會

群山爆騰 日本內地의不作豫想과 定期의奔騰을보고 實需側의買氣가 熾烈하야 移出向의買氣가 消極的이나마 一般으로商價생각이 深刻하야 一圓十錢爆騰인 五ク四等新米三十一圓五十錢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第一回豫想은 强氣의見解에背馳되어 利喰이急하야 寄는不透明이엇스나 其後强氣의 買出動으로 引締이엇다 第一回豫想으로보아 六千萬石說指持가豫想되엇스나 二十日以後의 風水害早冷等의 被害를 考慮하면 二回豫想은減少되어도 六千萬石說 見解로 押目買氣가 旺盛하고 新甫十二限은 豫想대로 三十錢下鞘인 一圓으로發會되고 期近高에 作하야 鞍騰步調를 示하얏다 買方 地場 中谷 地場 利喰 賣方 石井 馬越 株式側 地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二六五

金融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一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카고期麥 [illegible]

◆鰯油冲價 [illegible]

◆鰯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期米 福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

期米 福 吉村取引店 仁川本町三

株式一日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一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一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